

## “우리도 할 수 있다” 21세기의 제자도 新 선교 모델

아시아선교협의회 송도서 국제선교대회 개최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서구에 의해 주도된 세계선교가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그 결과로 현대 선교계에 제국주의, 정복주의, 문화우월주의를 내세운 힘의 선교에 대한 자성이 일어나는 가운데 21세기의 선교방향을 모색하는 대회가 열린다.



박기호 박사

러다임은 긴급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박기호 박사는 이에 대해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냈던

아시아선교협의회(Asia Missions Association)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해 한국 송도에 위치한 뉴욕주립대 캠퍼스에서 10월 7-11일 “Discipleship in Mission in 21st Century”라는 주제 아래 선교대회를 연다. 창립 이래 매3년마다 대회를 개최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으며 그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러시아 모스크바, 터키 에베소 등지에서 선교대회를 연 바 있다.

한국 선교신학계의 원로로 꼽히는 조동진 박사는 1960년에 이미 아시아 주도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이 단체를 준비해 오다 1973년 고(故)한경직 목사를 포함한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에서 이 단체를 창립했다. 현재 대표는 풀러신 학교 선교학 교수인 박기호 박사가 맡고 있으며 본부도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위치해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21세기 선교에서의 제자도”이다. 이 주제에서 미리 엿볼 수 있는 대회의 내용은 사뭇 래디컬하다. 먼저는 21세기 선교에는 과거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이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선진국에서 복음을 모르는 이교도의 나라를 향해 선교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는 뜻이다. 남보다 먼저 가서 그 나라에 내 교회, 내 선교단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패

요셉은 타국의 죄수 노예였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너희 하나님은 잠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는 말을 들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다. 피지배 계급이었던 초대교회가 지배국인 로마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복음은 약자에서 강자에게로 전파돼 왔다”고 운을 폈다.

그러나 그는 “이와 반대로 근현대에 이르러는 강자가 힘의 선교를 해 왔다. 선교라고 하면 정치력과 군사력을 갖고 남의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유럽과 미국의 이 같은 선교 방식에 대해 자성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이런 부담에서 자유롭진 않다.

그렇기에 아시아선교협의회는 이대안으로 ‘제자도’를 꼽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희생과 내어놓음, 섬김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을 보다 구체화하면 새로운 선교 모델로서의 ‘협력 선교’다. 내 교파 선교사가 없으면 그곳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내 교회가 지는 교회당이 없으면 교회부터 짓고 보는 경쟁적 선교가 아니라 현지 교회를 존중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 2면으로 이어짐  
 김준형 기자



美 영적 대각성과 세대간 연합 위한 ‘자마 컨퍼런스’ = 오는 11월 8일부터 3일간 풀러튼에 위치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릴 ‘자마 뉴어웨이브 컨퍼런스’를 앞두고 교계 및 자마 관계자들이 LA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민경업 목사, 진유철 목사, 한기홍 목사, 김춘근 자마 대표, 강순영 부대표, 양경선 목사.(관계기사 3면)

## 유사종교화되는 무신론 ‘하나님 없는 교회’ 확산

예배 본따 기독교 비판... 우려 목소리 커져

영국에서 시작된 ‘하나님 없는 교회(godless church)’가 현지에서 급격히 수를 늘려가고 있는 데 이어 미국과 호주에까지 진출해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일요총회(The Sunday Assembly)’는 언뜻 보면 여느 기독교 교단의 이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천국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단체다. 이 단체는 기독교 교회 대신 ‘하나님 없는 교회’를 주장하는 ‘무신론 회당’을 영국 내에 세우고 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 주일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강연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삶의 경이로움을 찬미한다.

8개월 전 첫 회당을 세운 이 단체는 짧은 시간 안에 영국 전역의 20개 도시에 지성적 개념의 지역 회당을 추가로 개척했으며, 미국의 뉴욕과 샌

디에고, 시드니의 멤버론에까지 회당을 열게 됐다. 뉴욕에 세워지는 회당은 빠르면 이달 29일에 첫 무신론 ‘예배’를 드리게 된다.

단체측은 ‘하나님 없는 교회’를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에 1천 개 이상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요총회’는 영국의 무신론자 코미디언인 샌더스 존스와 파이파 에반스가 창립했다. 그들은 공식 사이트에 올린 총회 헌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無)에서 태어나 무로 돌아간다. 이러한 삶을 함께 즐기자. 어떤 교리도 경건도 없으며 우리는 모든 것들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신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요총회는 사랑과 긍휼의 집이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환영받고,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도 밝히고 있다.

일요총회의 소속 회원들은 한편 기

독교에서 미션 스쿨을 세우는 것과 흡사하게 자신들의 단체의 사상에 따라 교육하는 무료 학교를 세울 계획도 세우고 있다. “언젠가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 무신론자인 것처럼 속이는 날”이 오리란 기대 속에서다.

종교 전문가들은 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본질보다는 종교적 양식에 흥미를 느끼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종교계 싱크탱크인 테오스(Theos)의 선임 연구원 닉 스펜서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적이기는 거부하나 전통적인 종교적인 양식은 유지하기 원하는 이들이 뚜렷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이 점차 유사종교화 되어가는 무신론 운동에 대해, 기독교계의 주의를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현정 기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 남가주 목회자 초청

## 영상설교 및 교회 영상물 제작 세미나

세상은 IT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보고 느끼는 감성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목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교회가 효율적인 복음전도 수단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에 영상 설교 LA지부에서는 감성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한 교회 홍보, 교육, 설교에 도움을 드리는 세미나를 열고 목회자들을 초청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목회자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자리관개로 선착순 등록을 받습니다. (개인 노트북 지참 필수)

• 일 시: 2013년 9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오후4시  
 • 장 소: 시크릿 가든 식당 홀(Olympic+Westlake in LA)  
 • 회 비: \$10(점심 제공)  
 • 경 품: 노트북 1대 및 기타(추첨)  
 • 주 최: 영상설교아카데미 L.A. 지부  
 • 후 원: 남가주교협, 남가주 중부교협, 기독교일보, 레이저비전, 한국장의사, 노트북샷닷컴, 실버아카데미, 코리안 가정 양로원, 현대 설교 연구소  
 • 등록문의: 회장 박부환목사(213-321-4433) 총무 양경선목사(213-255-1725)

〈강의 시간표〉

시간	강의내용
오전 10:10~10:30	맛보기 강의: 3D, Power Director, Photo Edit
10:30~11:00	영상설교 실제: 설교 및 강의
11:00~11:30	영상설교 제작: Presentation(1)
11:30~12:00	음향 강의: 레이저 비전
오후 1:10~2:00	Power Director 강의
2:00~2:30	영상설교 제작: Presentation(2)
2:30~3:00	3D제작, 간단한 사진편집, 오캠
3:00~3:30	한국장의사 소개 경품 추첨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열린 '사랑의 무료급식행사'에서 한 봉사자가 한인 독거노인들에게 쌀 1포씩 선물하고 있다.

# 나눔으로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

### 방주교회 주최 <사랑의 무료급식행사> <웃놀이대회>

#### 오는 10월 초 자바시장 한글학교 오픈 예정

LA한인타운을 대표하는 자선행사 로 자리매김한 '사랑의 무료급식행사' 가 지난 8일 정오 한가위 행사로 열렸다.

방주교회 측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필그림교회(1233 S. Vermont)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참석한 3백여명의 한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풍성한 추석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로 쌀 1포씩 증정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한인업체 '왕글로벌'이 후원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로 3년째 이 행사를 계속해온

방주교회 담임 김영규 목사는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게나마 이렇게 섬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또 오는 21일에도 리틀도쿄 캘러리아몰 2층에서 '한가위 웃놀이대회'를 연다. 한인뿐 아니라 일본인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이 행사는 당일 오후 1-5시 진행되며, 총 16개팀이 참가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을 위한 제기차기 대회를 비롯 LA어머니 봉사회가 마련한 각설이 타령 등 다채로운 볼거

리도 마련된다.

방주교회의 지역사회 섬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는 10월 초부터는 매주 토요일 최근 자바시장 내 새로 오픈한 기도실에서 '무료 한글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사로는 서울여대 아동학과 출신인 이지혜씨가 나선다. 김영규 목사는 "자바에서 일하는 한인가정 자녀뿐 아니라 흠세일마트 인근에 거주하는 타인종 자녀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했다"고 개설 취지를 밝혔다.

정한나 기자

# 릭 워렌 "고통도 신앙의 자산 낭비하지 말라"

### 강단 복귀 후 6주간 시리즈 설교 마무리



릭 워렌 목사

릭 워렌 목사(새들백교회 담임)가 지난 15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삶을 배우고,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계기로 삼으라"고 권면했다.

이들의 죽음으로 5개월 간 마음의 고통을 겪은 워렌 목사는, 강단에 복귀한 이후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6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전했다. 이번 주 설교가 그 마지막 순서였다.

각각의 설교는 슬픔의 6단계인 충격, 슬픔, 분노, 순종, 성화, 봉사와 헌신에 초점을 맞췄다.

워렌 목사는 '여러분의 고통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Never Waste Your Pain)'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두신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 고통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삶의 메시지는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에서 나온다"면서 "만약 내가 이 고통의 목적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낭비해 버린다. 그들은 손실로부터 절대 배우지 않고, 고통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익을 통해 성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워렌 목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역시 고통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서 "고통을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고통에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워렌 목사는 이어 "사임, 스포츠, 사랑, 재정, 관계성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회복력(resilience)이다. 이것은 뒤처짐 혹은 실패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패자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반면, 승리는 문제에서 다시 일어난다. 사람의 이같은 회복의 비결은 바로 관점에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개인의 고통이 다른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4-6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고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씀을 언급하면서 메시지를 마쳤다.

### >>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점령군의 모습이 아닌 철저히 낮아진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세우고 타인과 협력하는 선교 모델을 이번 대회 기간 중 도출해 내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시아가 나서야 한다는 새로운 접근법도 이뤄진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대부분의 지역이 회교권, 공산권으로 분류되는 아시아다. 이곳에서는 선교사들이 제자도를 품고 서로 협력해야 하며 다양하고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박기호 박사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는 서구식 선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구처럼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선교할 처지가 못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박기호 박사는 "한국은 교회가 갓 생겨나기 시작하자마자, 평양신학교에서 7인의 목회자가 최초로 배출되자 곧바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제국주의 아래 있던 정치적 약자, 경제적 약자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한국교회

는 선교했다"면서 "아시아 교회들에 한국교회의 사례를 보여주며 당신들이야말로 선교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시켜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50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는데 그 중 아시아 43개국에서 86명의 선교사와 86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참석한다. 제자적 선교 모델을 의논하고 현지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선교사 2명과 평신도 2명이 참석하도록 했다. 강사는 독일 튀빙엔대학의 선교학 교수인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 브라질 OM선교회의 데시오 데

카르발루 목사, 나이지리아 복음주의선교협회의 회장 르우벤 에제마 두 목사, 말레이시아의 다니엘 호 목사, 로잔운동의 신임 CEO인 마이클 오 목사, 인도선교협회의 수잔다 대표 목사, 아시아선교학회 대표인 찬사모네 사이야샤 목사 등 쟁쟁한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한국인으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바울선교회 이동휘 목사, GP선교회 조웅중 미국대표, KWMA 한성국 사무총장, SEED선교회 이원상 목사, 동경요한교회 김규동 목사가 있다.

박기호 박사는 "협력과 동반자적

사역을 통해 이땅의 교회에 주신 모든 인적, 물질 자원을 활용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일하자는 비전을 선포하려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거대한 제자적 선교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일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무총장 엄경섭 목사는 "서구적 선교방법에는 한계가 왔다. 이제 세계교회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선교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큰 기대를 내비쳤다.

자세한 정보는 [www.asiamissions.net/convention/](http://www.asiamissions.net/conventio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F코딩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남가주살롬교회 입당 감사예배

## 입당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토랜스에 위치한 남가주 살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입당예배를 드리오니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목사**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

**일시: 2013년 9월 22일(주일) 오후4시**

**주소: 20050 S. Vermont, Torrance, CA 90502**

**Tel: 310-787-1004 • 310-965-0164**

**www.shalomch.net**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오전 9:30    (영아/유치/유년/초등)  
3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30

한국어대학청년부 9:30

사랑부 예배 오전 9:30

EM 예배 오전 10:00

**평일예배**

새벽 예배 6:00 (월~토)

수요 예배 7:30

금요 성경공부 7:30

**살롬교회**

주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담임목사 김준식

**귀국이사 • 타주이사 • 시내이사 • 차량운송**

후원: 삼성통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310.538.3333**

JAMA NEW AWAKENING CONFERENCE

세대간 연합의 장 '자마 컨퍼런스' 이 나라 위해 모인다

오는 11월 8-10일 은혜한인교회서
1,2세 한어권 대규모 컨퍼런스 개최
교계 강사진 총출동... 다양한 선택강의



영 박사, '디아스포라 비전'(박수웅 장로), '기러기 가족'(고승희 목사), '홀부 모 회복사역'(금병달 박사, 김정진 사모), '독신기간의 가치'(금병달 박사, 김정진 사모), '가치관 전쟁'(김태호 목사, 세라 김 사모) 등이 마련된다.
대회는 8일 오후 5시에 등록으로 시작하며, 토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린다. 등록비는 10월 4일까지 등록시 일반 70불, 어린이 35불, 10월 5일 이후에는 일반 85불, 어린이 45불이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LA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가주교협 회

장 진유철 목사는 "자마 운동을 일으킨 김춘근 교수님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불을 붙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이곳의 영성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기홍 목사는 "자마 운동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하는 운동이며 또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신앙의 계승 운동이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춘근 교수는 "미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영적, 도덕적 위기에 있다. 그런데 아직 회개하는 민족과 인종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위대한 사명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음을 알고 미국을 회복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진정한 회개 운동을 통해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 컨퍼런스는 플로리다, 샌디에고, 애들란타, 애너하임, 달라스 등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 대회는 자마와 남가주교협, OC교협 그리고 각 지역 교협에서 협력 주최로 열린다.
문의:(323)933-4055
www.jamanewawakening.com
토마스 멩 기자

남가주밀알선교단, 대통령자원봉사상 수여식 열어

남가주밀알선교단(이영선 단장)이 2013 대통령자원봉사상 및 에드روی시언방학원의원 봉사상 수여식을 14일 오전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길교회(노진준 목사)에서 가졌다.

이 봉사상은 밀알선교단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토요일교인 사랑의 교실과 기타 봉사 프로그램을 섬긴 자

원봉사자들을 위한 것으로 마련됐다. 이날 황보 라팔마 시장이 초청돼 메시지를 전했으며, 대통령자원봉사상 56명, 에드روی시언방학원의원 봉

사상 10명 등 총 66명이 수여받았다. 또 6명의 학생들이 2013 밀알사랑의 캠프 에세이상을 받았다. 황보 라팔마 시장은 연설을 통해

"지원하였던 봉사의 마음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말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 대통령자원봉사상 및 에드روی시언방학원의원 봉사상 수여식이 지난 14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길교회에서 열렸다.

Advertisement for Dana Hospital (다나병원) and insurance services. Includes text: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Large advertisement for Los Angeles ORT College. Includes logo, contact info for Grace (323.966.5444), and a list of courses like 'Medical Office Management',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and 'ESL Program'. Also features a map of the Los Angeles area.

# 지·인성은 물론 영성까지 바로 잡는 UBM기독교대안학교

## 장학사 시찰 “ACE 역사상 이중언어로는 최초” 평가



ACE 프로그램을 보완 운영중인 UBM기독교대안학교를 방문한 장학사들과 앤드류 김 목사가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해 소수집에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UBM기독교대안학교 학생들이 장학사의 연설에 귀 기울이고 있다.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는 거주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는 교회가 2세 교육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자심 하에 1년여 전 시작된 'UBM기독교대안학교'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학교가 위치해 있는 옐로스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불과 수개월 만에 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학교가 현재 보완 운영중인 선교사 자녀교육프로그램 ACE(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 본부에서 멜리디 켈크랜드(Melody Kirkland)를 비롯 장학사 3명이 시찰하는 등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40년 전통을 지닌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 홈스쿨링제도로 손꼽히고 있는 ACE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해 개별 진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참고로 이번에 방문한 멜리디 켈크랜드 장학사는 창립자 도널드 하워드 박사의 딸이기도 하다. 'Reaching the world for Christ, one child at a time'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ACE는 현재 테네시 네슈빌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번 장학사 방문은 미주 내 한인 커뮤니티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ACE 역사상 UBM기독교대안학교가 최초로 이중언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더욱 의의가 깊다. 이날 학교를 방문한 장학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학내 분위기가 매우 안정돼 있으며,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가 뜨겁다”며 “그간 학교에 대한 소문을 귀로만 들어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방문해 보니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 매우 성공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앞으로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귀한 인재들이 대거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UBM기독교대안학교는 킨더가든-12학년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인성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아판단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춰 아이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며, 무엇보다 교회가 나서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교육에 헌신하는 만큼 학생들의 지성과 인성은 물론 영성 개발에 탁월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앤드류 김 목사는 “학교가 이 만큼 성장한 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부요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남가주 일원을 중심으로 기독교대안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개척교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를 등을 공유하는 등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www.ubmchurch.com >전화: (714) 600-7700, (562) 930-2600

정한나 기자

## 특수장애사역 위한 교사 세미나 열린다

### 장사모 '장애치료 방법론' 공유

특수장애사역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가 '2013 Thy Kingdom Come'이라는 주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다.

장사모(장애인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의 모임, 영어 명칭은 International Disability Ministry Association, 줄여서 IDMA, 대표 김의구 목사)가 주최하는 이 세미나는 장애인

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회 현장의 사역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장애인들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12주간의 커리큘럼을 신약의 인물 중심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사모에 따르면 이 세미나는 기존의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로서 다가가기 어려운 발달장애아들에게 믿음의 중심인 말씀을 언어 이상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자 마련됐다.

장사모 측은 “흔히 표현적 예술(Expressive Arts)이라 불리는 음악, 미술, 댄스를 통해 오감으로 체험하고 느끼면서 성경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장애치료의 방법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

표”고 밝혔다.

장사모 측은 또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특수장애사역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듯,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깊이의 내면을 지닌 발달장애아들에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게 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 내용은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댄스치료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성경말씀을 전하는 형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됐다. 그림으로 작품으로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미술 성경공부, 중요한 말씀구절을 외우도록 만

든 창작곡, 신약에서 중요한 사건의 스토리텔링을 음악으로 그리고 율동으로 표현, 예배에서 찬양과 율동을 장애 정도에 맞춰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등 실제적인 교재에 대한 실연기회도 마련된다.

장사모 대표 김의구 목사는 “이번 연합으로 열리는 교사세미나가 앞으로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 발달장애아들을 믿음의 기둥으로 세우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참가 대상은 장애인 사역자 및 교사 및 봉사자이며, 참가비는 회원일 경우 50불, 비회원일 경우 70불이다. >문의: (213) 247-4833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열공촉수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에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마드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죽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질의 인슈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PRO-Z**

신제품 소비자공급가 \$76 \*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체중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슈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슈린 분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당뇨 프로-지 임상 연구소**  
1543 Olympic Blvd, Suite 505  
Los Angeles, CA 90015  
매주 토요일 당뇨세미나 실시

**213.381.7273**

# 구령의 산고

마태복음 27:45~5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체험과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집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 산 죄값으로 그 귀하신 예수님을 엄청나게 괴롭게 돌아가시게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 남은 평생은 주님만 위하여 살겠다고 스스로 성령의 감동 어린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영감적인 신앙체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보답하며 살려는 태도보다는 평생을 두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착각하고 자기 입장을 앞세워 현실적으로 세상 조건과 죄악에 휩쓸리는 폐단이 있어서 양떼에겐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고 그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지받고 반성하며 회개, 각성하여 바른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 대속(代贖)의 십자가

예수님은 제 육신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의 시간은 해 뜨는 시간을 한시로 했기 때문에 아침 여섯시에 해가 뜹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해 뜨는 시간에 여섯 시간을 더하여 계산하면 정오, 낮 12시가 됩니다.

아침 일찍이 십자가 형벌을 지시고 출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통하는 성문을 향하는 오르막길을 오르시다 여러 차례 쓰러지셨기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더 시간이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보기 위해 길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혀 달리신 예수님은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씌운 가시관에 찔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형벌에 달리신 주님은 죽음을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하는 뜻으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로 죽기 싫어 불평하는 말로 호소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왜 그토록 처참한 형벌을 받으며 죽으셔야 했었가를 바로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스럽도록 버림받아 죽어갔는지를 바로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정확한 대답을 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곧 '내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해산하기 위하여 치르신 대속의 희생이요, 고난이며, 산고였습니다'하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성도의 자격

이 서둘러질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풀라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구원얻으라고 기록하신 특별계시인 것입니다.

특별계시(特別啓示, special revelation)는 아무나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정확한 신앙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 해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이제껏 예수님이 구령의 산고, 즉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치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정한 의미라고 확실히 믿어지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영원히 후회할 수 밖에 없는 불행한 접하게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시고 당하신 고통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 "주여, 내가 알고 믿사오니 내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산해 주시느라고 당하신 산고가 아니었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 구령(救靈)의 산고의 증거

51절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잘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두칸으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혀 만든 껍질이 법궤입니다. 그 껍안은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만나를 넣은 순금을 입힌 돌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신 법통(法統)의 하나님이시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러왔던 그 싹난 지팡이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만들어진 성소의 모형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출입하는 성소가 있고 그 중간에 휘장이 막혀 있었는데,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은 높이가 50구빗이나 되어 이 휘장을 찢고자 하면 아래쪽을 조금 잘라 양쪽으로 사람들이 잡고 당겨야 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

실 때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명이 이루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아 둘 필요가 없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16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 부활(復活)의 증거

휘장이 찢어진 것 외에 또 다른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보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자던 성도들의 몸은 무덤 안에 잠든 것처럼 묻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심과 동시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사흘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걸어 나와 비로소 거룩한 성(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에스겔 37:1~37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 대군을 이루는 엄청난 부활의 역사도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부활소망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부패하여 썩는 냄새까지 났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하시자 시체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된다는 계산으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시 허락받은 인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시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기대하는 궁극적 소망이 바로 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진수(眞髓)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제자들에게 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무리들에게 부활의 실질적인 증거를 나타내 보이셔서 나사로는 부활의 표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운명하시신 과정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고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되살아났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곧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0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사로가 예수님 보다 먼저 부활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날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먼저 부활한 듯 생각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부활일뿐 영구한 부활의 주인공으로는 예수님이 첫 열매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뒤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마27:54)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해산하시느라 치르신 예수님의 고통이 구령의 산고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19-21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로하시는 독백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예수님께 기대 걸고 따르던 제자들은 낙심하고 애통하며 통곡하겠지만 마귀 앞잡이로 세상에 속한 무리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자녀 되게 하기위해 치르신 해산의 고통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치 아니하시니라"(요16:21)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정책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9월 9일 개강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M.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신학교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신학교과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 살림의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

살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 월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본 선교회 사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은 뉴스레터 수신자 여러분들께 선교회 사정을 믿음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본 선교회는 1999년 6월에 설립된 이래 지난 14년간 LA코리안타운에서 장애인 특수목회에 전념하는 선교단체입니다. 담임 사역자를 포함해 현재 총 6명의 동역자들이 선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섬기고 있는 장애인 가족은 약 300가정 이상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약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95년 된 허름한 창고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하셔서 아름답게 리모델링 공사한 후 2012년 4월 말에 자체 건물에 입주하여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비전은 첫째로, 지역사회 속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찾아내어 (Search) 섬기는(Serve)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은 대부분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로서 그들은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살림장애인센터는 그들의 영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재활을 위한 선교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박 모 세 목사  
살림장애인선교회

둘째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해외 장애인들에게, 심지어는 공산권과 회교권에도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역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동시에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할 아프리카 장애인들을 포함하여 금년까지 총 4만 5000여 명의 장애인들을 섬기게 됩니다.

본 선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미국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도 큰 영향을 받는지 후원자들(교회와 성도)이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어느 후원자는 지난 10여년 간 월 50불씩 후원하던 것을 금년 2/4분기부터는 후원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을 못하는데 뉴스레터 받는 것이 부담되어서인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그만 보내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선교회보를 통해 수신자 여러분들께 주 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후원동역자"가 되어 달라구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뭄다." 뉴스레터를 받는 분들 중에 약 500명의 수신자들이 매월 20불씩만 후원해 주신다면 선교회의 누적된 재정적자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살림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장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로 혹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살림의 동역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귀하는 것이니 (그가)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19:17).

## 부목사 청빙 광고



San Francisco Bay 지역에 위치한 콘트라코스타 한인장로교회(PCUSA)에서 함께 동역할 풀타임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신청 자격:

1.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분
2. 5년이상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3. 이민교회에 대한 이해와 사명을 갖고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실 분
4. 목회 행정, 제자 훈련 및 목회 전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
5.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5.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2. 신앙 고백서
3. 자기 소개서 및 증명사진(가족사진 If married)
4. 학력 증명서
5. 추천서 2부
6. 목사 안수증 사본
7. 설교 CD 2개

\* 1차 심사후 기타 증명서를 요청할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감: 2013년 9월 30일

연락처: 콘트라코스타 한인장로교회 인사위원회

(최용훈 장로: cckpc.choi@gmail.com 9258992916)

### CONTRA COSTA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전성호 CCKPC.ORG

2460 Old Crow Canyon Rd, San Ramon, CA, 94583

##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은혜 성로원 교회에서 함께 동역 할 풀타임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찬양인도를 하실 수 있고 하루 3시간 이상 기도에 열심이 있으며, 개척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전도에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사역할 분을 찾습니다.



### 신청 자격:

-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 소개 및 신앙고백서
  3. 학력증명서
  4. 목사 안수증 사본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감: 2013년 9월 30일

Email : jjohn@hanmail.net

주소 : 850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 은혜 성로원 교회 송성엽 담임목사

850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8)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한 분을 선정하려면 필자는 성 프랜시스를 꼽겠다. 그는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서 화려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청빈을 주장하며 산 사람이다. 그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절대 청빈과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 믿고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다. 그렇게 하여 청빈(淸貧)을 성빈(聖貧)으로 승화시켰다. 오늘날 프랜시스칸들은 성빈을 다시 신빈(神貧)이라 불러 가난은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고까지 했다. 이에 오늘날 영적 성숙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부인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자기를 부인하라(마16:2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버리고 단념한다는 뜻이다. 즉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포기한다는 뜻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출세하여 사회적으로 명예가 주어질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등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재물이 많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을 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다.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였다. 다시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돼 있다. 부자청년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은 재물 때문이다. 결국 그는 영생도 얻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됐다.

재물과 권력, 명예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이 주셨기에 내가 누리고 살 뿐이다. 다윗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고 고백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그분의 뜻 아래에서 계획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많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자기 부인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 먼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자. 그것이 불

질이라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 매번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도록 하자. 결제 없이 사용된 재물은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사용했기에 그에 해당하는 책망함이 따를 것이다. 자신에게 권력(힘)이 주어졌다면 이를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힘을 사적으로 휘두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뿐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부인이 안됨으로 인해 지탄과 조롱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부인 훈련이 잘된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다. 그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함 3:17, 18)고 말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무엇을 부인하지 못하겠는가. 소유한 것과 생명까지도 부인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임에 틀림이 없다.

글=이영두 목사  
호크마신학대학교 영성신학박사

##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 English (초급 영어)

>Do you live in the apartment?  
당신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나요?  
>No, I live in the house.  
아니요. 개인 집에서 살고 있어요.  
>Do you have any plumbing problem with your house?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수도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No, I don't have any problem with my house.  
아니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Do you have good neighbors?  
당신은 좋은 이웃을 가지고 있나요?  
>Yes, I do. All my neighbors are very good people.  
네, (제 주변의) 이웃들은 모두 대단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 English (중급 영어)

When Jesus saw Nathanael coming toward him, he said, "Here is a true descendant of our ancestors Israel.

And he isn't deceitful." "How do you know me?" Nathanael asked.  
Jesus answered, "Before Phillip called you, I saw you under the fig tree." Nathanael said, "Rabbi, you are the Son of God and the King of Israel!"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그에게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 참 이스라엘 조상의 후손이 있구나"고 말씀하셨다. 이에 나다니엘이 "어떻게 아세요?"라고 묻자 예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단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나다니엘은 "랍비(선생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했다.

### English (고급 영어)

The greatest leaders are to imitate the servanthood of Jesus Christ. Christ became the servant who was chosen by God, and the suffering of

Christ was the will of the God, Jehovah to serve and give his life for all people. The good leader is to be the servant for the group of people he leads. The best leaders must be God-centered and other people-centered, building up the spirits of holiness, integrity, charity, and responsibility.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신 모습을 따른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종이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통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의 생명을 내어주라는 것이다. 좋은 지도자는 자신이 인도하는 그룹 가운데 종이 되는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거룩한 정신을 비롯해 정직과 사랑과 책임을 다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며 또한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호식 교수

한솔종합보험(주)

Hansol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 [Hansol Life & Annuity Insurance]

생명보험과 연금플랜에 대한 모든 것

## (A) 생명보험(Life Insurance)종류와 활용

### (1) 종류

- \* Low Cost Term Plans(Level & ROP)
- \* 저축성생명보험
  - a) Guaranteed UL plans
  - b) Guaranteed Index UL plans

### (2) 생명보험의 활용

- \* Estate Planning & Retirement
- \* Business Planning
- \* Tax-Shelter Planning(Key man Ins)
- \* Premium Financing, etc

# 30여개의 A+ 생명보험회사 취급

## (B) 연금플랜의 종류와 상품

### (1) 취급 범위

- \* 은퇴계획 Planning 단기, 중기, 장기 Planing
- \* Social Security Maximization Planning
  - Restricted Application, File & Suspend, Combo

### (2) 취급 종류

- \* 사업주 주도의 Planning
  - a) 401(K), Simple, SEP, 403(b), 412(e), Roth 401(K), Solo 401(K)
  - b)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Planing
- \* 개인 Planning
  - a) IRA, Roth IRA

### (3) 취급 상품

- \* Fixed Annuity - CD Type 저축
- \* Immediate Annuity, 가입직후 평생수령
  - a) 저축목적 상품 - 5년, 7년, 10년, 12년, 14년
  - b) 연금수령목적상품
  - c) Guaranteed Lifetime Income(평생수령)
  - d) Bonus(4%, 6%, 10%) 4.5% compounding
  - f) Without Fees, With Fee
- \* Index Annuity

##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혜택

- \* 만 65세가 되셨습니까?
- \* 메디케어 A,B만 가지고 계십니까?
- \* 메디케어, 메디칼 동시에(Full Dual-Eligible Beneficiary)가지고 계십니까?
- \* 이번에 파트B를 새로 받으신 분,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한 경우나
- \* 직장보험에서 탈퇴한 경우가 있습니까?
- \* 파트 A가 없거나 이번에 파트 A 를 새로 받으셨나요?
- \* 메디케이드(Medi-Cal) 혜택이 이번에 Cost of Sharing(대략 \$699)으로 바뀌셨나요?
- \* HMO 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나, 당뇨, 심장질환 및 신장투석 등으로 본인 부담금이 많으세요?
- \* 장애자로서 메디케이드(Medi-cal)혜택은 있지만 메디케어 혜택이 필요하세요?

### 20% 보충보험(Supplement)

본인이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

### 시니어 우대플랜(Advantage-Part C)

보험료없이 20%와 약이 커버(HMO, PPO)  
Medicare에서 커버하지 않는 다른 Benefit도 제공합니다.

### 처방약보험(Part D)

복용중인 약이 다 커버되는 보험회사를 찾으드립니다.

### 처방약보험료가 부담 되십니까?

저소득기준이 맞으면 약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  
오바마케어 건강플랜  
가입을 적극  
도웁니다!

“EXTRA HELP”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문의 800.300.0703 / 213.487.4900

## 사업체 보험 (BUSINESS INSURANCE)

- 화재보험, 도난보험
- 초과액 보상보험(Commercial Umbrella)
- 기계보험(Boiler & Machinery)
- 고용관련 배상책임보험(EPL)
- 지진 홍수 보험
- 건설공사보험(Builder's Risk)
- 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 상업용 자동차 보험(Commercial Auto)
-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 종업원용 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개인 자동차 보험(Auto Insurance)

## 개인 집 보험(Home Insurance)

### 취급보험회사 (Insurance carriers)



보험/은퇴/학자금/재정설계  
**Hansol 한솔종합보험(주)**  
 Since 1977

### 동성커플에 케이크 제공한 베티 크로커社 불매 운동

토니 퍼킨스  
“베티 크로커 측 동성결혼 지지  
대참사 위한 레시피” 지적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이 7월 미네소타 주에서 행해진 첫번째 동성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케이크를 제공한 제너럴 밀즈(General Mills)의 베티 크로커(Betty Crocker)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요청했다. 지난 7월 미네소타 주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한 베티 크로커의 경영인 로라 포레로(Laura Forero)씨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기업 이미지를 위해 동성결혼을 지지하며 우리 베티 크로커는 다양성과 포괄성을 그 유전자로 삼는다”고 말했다. 포레로 씨는 “베티 크로커는 모든

가정을 축하하기에 이번에 이 세 가정을 축하하는 일은 매우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퍼킨스 회장은 이 논평에서 “인기 많은 케이크 믹스 브랜드가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퍼킨스 회장은 “베티 크로커, 그들이 혼동하고 있는 한가지는 우선 순위다”며 “베티 크로커의 최근 홍보 활동은 ‘대참사를 위한 레시피’다. 이번 여름에 이 회사는 동성결혼에 편승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가져왔다. 제너럴 밀즈가 본사를 두고 있는 미네소타에서 베티 크로커는 거짓 결혼이 합법화된 첫날, 첫번째 혼인 서약을 맺은 동성 부부에게 웨딩케이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너럴 밀즈에겐 안됐지만, 미국인 다수는 전통적 방식의 결혼만을 자연스러운 결혼으로 여긴

다. 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타겟, 스타벅스, JC페니 처럼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당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라. 상점에서 베티 크로커 박스 너머를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취자들에게 제너럴 밀즈의 브랜드 목록을 게재한 웹사이트(dumpgeneralmills.com)를 알리며 불매운동을 요청했다. 제너럴 밀즈는 지난해 상정된, 결혼을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수정조항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미네소타 공중파 라디오에 따르면, 이 결정은 이후 미국 전통결혼 지지단체(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가 조직한 Dump General Mills 불매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수정조항을 기각했고 지난 5월 주의회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디 한 기자

### 사랑의빛선교교회 3대 담임에 윤대혁 목사 내정

사랑의빛선교교회가 남가주 사랑의교회 윤대혁 목사(사진)를 3대 담임목사로 내정했다. 교회 측은 지난 8일 윤대혁 목사 청빙 인준 사실을 밝혔다. 사랑의빛선교교회측은 이번 내정으로 지난 4월 당시 담임으로 시무하던 최혁 목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공석이던 담임목회자 청빙이 이뤄지게 된 데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됨을 힘써 지킨 아름다운 청빙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투명한 청빙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윤대혁 목사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사랑의빛선교교회 부흥회를 인도한 후 내달 담임목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목사로의 마지막 관문을 밟게 된다. 윤대혁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졸업 후, 오륜교회와 남가주사랑의교회 등지에서 12년간 청년 사역에 매진해 왔으며 현재 남가주사랑의교회 성인교구, 평신도 개발원 등을 맡고 있다.

### 넌크리스천에게 친숙히 다가가는 찬양예배 <크리오워십>



#### 세계등대교회서 오는 22일부터 시작

민지 않는 유학생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찬양예배가 준비돼 눈길을 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세계등대교회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찬양예배가 드려지게 된다. ‘크리오워십

이라 명명된 이 예배는 개교회 차원이 아닌 LA 몇몇 지역교회 찬양디렉터와 팀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또한 미국생활에 도움을 주는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마련해 청년들에게 도움을 준다. 예배는 오후 2시부터 40분간 경배와 찬양을 드린 뒤 10분간 말씀 증거, 기도와 헌금에 이어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는 형식이다. 김도일 전도사는 “특별히 넌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초점을 뒀서 경배와 찬양 부분에 신경을 쓰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며 “헬프 데스크를 마련해 유학생들에게 자동차 보험, 학교 등록, DMV 이용방법 등 미국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도일 전도사와 일문일답.

#### -크리오워십이란?

크리오(Chrio)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χρῶ?’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다. 크리오 워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일컫는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한 기름 부으심의 예배를 통해 LA에 있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찬양예배로 준비하고 있다.

#### -대상은?

LA 지역에 있는 15세 및 유학생 및 젊은이들이다. 찬양에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누구라도 참석 할 수 있는 예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

#### -다른 예배와 구별된 특징이 있다면?

젊은이들의 코드에 맞는 찬양과 예배 형식으로 드러진다. 헬프 데스크를

오픈해 유학생 그리고 이민 온 젊은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함께 협력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다. 각 교회 찬양 디렉터들 및 세션들이 연합하여 찬양팀을 구성하며, 예배 후에는 관계 중심적인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 -더 할 말씀이 있다면?

LA지역의 복음화를 예배를 통해 이뤄가길 원하며, 죽어가는 영적 사막 LA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 또 찬양이라는 곡조 달린 기도로 좀 더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넌크리스천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형식으로 선교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 (213) 380-9931  
주소: 846 S. Union Ave., LA 토마스 맹 기자

## “신정론은 결코 인간의 지식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韓개혁신학회 제105차 정기학술발표회서 구자용 박사 발제

한국개혁신학회(회장 김영선 박사)는 14일(한국시각) 서울 신반포중앙교회(담임 김성봉 목사)에서 제105차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자용 박사(총신대)는 ‘욥기가 말하는 신정론에 대한 성서신학적 고찰’을 제목으로 발표, 관심을 모았다. 구 박사는 “고난의 출처와 악의 근원에 대해 질문하는 ‘신정론’의 문제는 다신교적 종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고난과 악의 출처는 이미 악한 귀신들과 정령들 등에 귀속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구 박사는 “구약 안에서도 신정론의 문제는 다양한 곳에서 논의되지만, 특별히 구약의 지혜문학서에 속하는 욥기에서는 ‘행위-회복’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며 “욥과 그의 친구들은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치는가’에 대해 격렬히 토론하지만, 그 결론은 쉽사리 도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데 이들의 이 끝없는 대화는 욥기 자체가 지니고 있는 교묘한 구성 속에서 조용히 그 해결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매우 분명하게 주어진다. 이것이 욥기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후 구 박사는 욥기 전체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뒤, “욥기의 전체적 구성은 신정론 논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틀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구조 속에는 신정론에 대한 해답이 암시되어 있기도 하다”며 “광범위한 시적 대화 부분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매우 정직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며, 고난당하는 의인이

전능자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제시한다. 그것은 비록 올바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 문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생각들의 집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논의의 명쾌한 해답과 결론은 전체적인 구성의 곳곳에 이미 암시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설과 그 이후 욥의 마지막 고백인 42장 1~6절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며 “그것은 욥기에서 신정론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지식과 지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구 박사는 “왜냐하면 신정

론의 문제는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질문이지만, 그 해결 방식은 결국 하나님에게로부터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이 논의가 2차원적인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창조주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논의의 차원이 확대되어야만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선 구 박사가 외에 정원래 교수(총신대)가 ‘본성에 따라 행함(facere quod in se est)’을 둘러싼 논의’를 제목으로 발표했고, 최순진 교수(햇볼트리니티), 김성진 교수(아신대), 안상혁 교수(합신대), 김성욱 교수(웨신대)가 논찬자로 참여했다.

**제2차 미스바, 한중일 연합기도회**  
COME TOGETHER GATHERING **2013**

# 컴투게더 6시간 연속기도회

아시아인 하이웨이를 여는 한,중,일 및 아시아인 교회 연합예배

**일시 | 나침반 교회 9월 28일 4PM - 10PM**  
**주소 -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2013 COME TOGETHER

주최 | 미스바 남가주 연합기도회    후원 |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크리스찬 헤럴드, 기독교일보, 크리스찬 비전신문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 제11차 미주지역총회 및 목사안수식 열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 총회 및 목사안수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11차 미주지역총회 및 목사안수식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가주빛내리교회(박용덕 목사)에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성장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첫날 총회에는 개회예배와 목사안수식이 있었다. 안수식에서는 남가주빛내리교회에서 청원한 구본관 전도사, 나성성지교회에서 청원한 김영웅 전도사, 남가주새언약교회에서 청원한 민선식 전도사, 토론토영안교회에서 청원한 이종욱 전도사, 놀웁성결교회에서 청원한 한진섭 전도사 등 총 5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날 총회 개회예배 및 안수식은 총 2부로 진행됐으며, 1부 개회예배에서는 미주지역총회 부총회장인 송영진 목사의 사회, 서부지방회장 장인관 목사의 기도, 한국 총회장 나세웅 목사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제목의 설교, 미주지역총회 증경총회장인 박용덕 목사의 성찬식 집례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순서에서는 목사안수식이 열린 가운데, 미주지역총회장인 최한오 목사의 집례로 진행되었으며 캐나다 서부지방회장인 이남규 목사의 기도, 안수자 서약, 안수례로 진행됐다. 안수자들을 위해 교단 총무 조일구 목사와 김부열 목사가 각각 권면했으며, 목영서 목사와 김순갑 목사가 축사를 했고, 안수 받은 이종욱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신임원으로는 총회장에 송영진 목사(캐나다 서부지방회, 임마누엘교회)와 부총회장에 장동신 목사(미국 동부지방회, 오늘의교회), 총무에 양승민 목사(캐나다 동부지방회, 토론토영안교회), 총회 서기에 강양규 목사(미국 서부지방회, 남가주새언약교회), 회계에 김영일 목사(미국 서부지방회, 섬김과나눔교회)가 각각 당선됐다. >전화: (213) 434-1083 >이메일: yang-kyu0531@hanmail.net(강양규 목사)

## 창대교회, 샌버나디노 주민 위한 의료봉사 실시



창대교회(담임 이창준 목사)가 오는 22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샌버나디노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동교회에서 실시한다.

검사는 피검사, 콜레스테롤검사, B형간염검사, 당뇨검사, 혈압검사, 유방암검사, 한방치료, 척추신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사는 이주원 박사(내과·예방의학)가 나선다.

교회 측은 "이번 무료행사를 놓치지 말고 검진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대교회 주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문의: (909) 381-8017, (909) 388-2940

## BIZ

### 한타서 사업하면 "EZ 세금 크레딧" 받는다

LA한타운을 포함하는 지역의 사업체들에 제공되는 엔터프라이즈존(EZ) 세금 크레딧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크레딧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면 큰 금액의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Z는 주정부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지역 거주자들을 고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본지는 이에 대해 'BH&J 회계법인' 방제웅 CPA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엔터프라이즈존(EZ) 세금 크레딧은 무엇인가?

비즈니스를 엔터프라이즈존에서 하고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하는(나후지역) 종업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첫해에 일년 월급의 50%, 두번째 해에 40%, 세번째 해에 30%, 네번째 해에 20%, 다섯번째 해에 10%의 주 세금 크레딧을 주는 것이다.

#### -EZ 세금 크레딧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은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분들만 신청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올해말에 종료될 하게 됨으로 지난 4년간 발생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몇달 남지 않았다. 지금 크레딧을 받아 놓으면 향후 10년간을 사용할 수 있다. 미래를 보고 지금 신청

하는 것이다.

####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거의 한타타운과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특정지역(엔터프라이즈존(EZ) 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을 고용한 비즈니스가 대상이 된다.

#### -EZ 세금 크레딧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LA한타타운에서 직원 4명을 고용해 작은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7만 2000달러의 주정부 세금 크레딧을 얻었다. 사무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엔터프라이즈존 안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전문 CPA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절차를 밟은 결과이다.

#### -연말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앞으로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정도 남았다. 도움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직접 전화하거나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면 도와드릴 수 있다.

>문의전화: (213) 386-1665

>BH & J,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3600 Wilshire Blvd. Suite 714, LA, CA 90010

##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교회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말-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3119W.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정우성 담임목사**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c.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최운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박승부 장로 1기,2기,3기,4기 수료생 배출,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물이나가수없이 순간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1543 Olympic blvd #505 LA, CA 90015  
OC부활교회 (아리랑 미켓 튀) T.(213) 381-7273 / F.(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안에서 행함은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넌전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담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몸,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7:30(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교회,성경학교노년회,만민봉사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말-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서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신교에 흐름, 소, 친, 초, 초의 흐름, 바른교회간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벨리세(Calling), 고지교(Healing), 기르메(Maturing), 왓슨(Controlling)

5005 Eder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화해가 있으며 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배우고 이만2개월목양2기,이만2개월목양2기,선교경영을 승수하는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 교회혁신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양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백이나 및 장애인 사용  
여러분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714)932-8993, (760)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창-신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 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양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45/2부 11:45  
2부예배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4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홍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의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명(通)하여 민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유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Toddler - Youth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부만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점심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화성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십)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반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의미(3)

Hellenism과 Judaism에 대한 오해들

### 6) 아고라의 뜻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어디에 있었는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중요치 않은 것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구나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카데미아의 소재지가 자주 언급되는 것은 플라톤이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아카데미아는 아고라에 있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학교인 퀴케이온도 에피쿠로스가 세운 정원학교도 그곳에 없었다. 예외적으로 설립당시 자체 건물에 없었던 스토아학파만이 아고라 안에 있는 스토아 피콜레라고 하는 건물에서 시작하였다.

스토아학파란 이름은 그 설립자 제논이 이 스토아에서 가르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이 건물을 빌려 쓴 것은 아니고, 마치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르친 것처럼 설립자 제논도 아고라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후에 자체건물을 구했을 때, 그것은 아고라에 없었다. 이들 학파들의 학교가 이곳에 없었던 이유는 아고라 안에는 국가의 공공건물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곳에는 사설건물이 들어설 수 없었다. 이것은 오늘날 정부청사나 또는 공공시설들이 있는 곳에 사설학원이 세워질 수 없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고라를 개역한 우리말 성경에는 “저자” 즉 시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이곳은 고대 폴리스의 공공생활의 중심지(civic or public center)로서 법정, 의회, 신전, 체육관 등 공공건물들이 세워져 있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공공행사가 이곳에서 행해졌다.

이 속에는 물론 시장도 있었으나 이 시장은 국가의 철저한 규제를 받아 운영되는 국영시장으로서 현대의 시장과는 사뭇 다른 곳이다. 이곳은 고대 로마의 중심지인 포럼(Forum Romanum)과 같은 곳이다.

### 7) 아카데미아의 소재

아카데미아는 당시로는 아테네 성곽밖에 있었고,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테네 중심가에서 북서쪽으로 좀 떨어진 콜로킨투(κολοκίντου)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고린도로 가는 길을 타고 가다 보면 시내를 벗어나기 전에 길 북쪽에 위치해 있다.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이름은 전설적인 영웅 아카데미아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바로 그 자리에 그를 모시는 사당과 정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아카데미아의 터는 1929년에 희랍건축가 아리스토폴론에 의해서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필자가 1991년 8월 아테네를 떠나기 얼마 전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도 발굴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기독교신문에 그 신문의 발행자 되시는 분이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쓴 기행문이 실렸는데, 그 분이 쓴 아테네에 대한 글에도 아카데미아가 아테네의 아고라에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양 사람들은 여행을 다닐 때, 특히 아테네나 로마를 여행할 때는 여행 가이드북을 들고 다닌다. 유럽인들은 대체로 영국에서 나온 “블루 가이드(Blue Guide)”를, 미국인들은 하버드대학에서 발행한 “렛츠고(Let's Go)”를 흔히 사용한다.

후자는 싸고 좋은 숙박소와 식당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길이가 없고, 전자는 길이는 있으나 그런 실용적인 안내가 없다. 이 “블루 가이드(Blue Guide)”는 비단 문외한뿐만 아니라 고대희랍의 문화와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도 이용할 정도이니 이것만 보아도 그 수준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 가운데는 이런 가이드북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드물다. 그러나 필자가 아테네를 떠나올 때에는 한국에서 발행된 가이드북을 가진 분들이 더러 눈에 띄었다.

이들 가이드북에도 고대 아카데미아가 위치한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그 분이 고대희랍의 역사책이나 플라톤에 관한 서적은 그만 두더라도 이런 널리 알려진 여행안내서만이라도 참고하였다면 위에 적은 그런 실수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여행객이라면 몰라도 신문사 발행인으로서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8) 소크라테스의 감옥과 사도바울의 감옥



서승원 목사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말해두고자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감옥과 바울의 감옥에 대한 잘못된 견해이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동남 편에 필로파푸스라고 불리는 낮은 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높은 언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아크로폴리스에서 이 언덕으로 가려면 그 사이에 있는 큰길을 건너게 되어있다.

길을 건너 언덕을 향해 가는 길 왼편 경사가 심한 언덕에 사람이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굴이 있는데, 당국에서 그 입구를 격자식의 철장으로 막아 놓았다. 이것이 소위 “소크라테스의 감옥”이라 불리는데, 한국 안내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지 안내인들 중에도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고대 아테네의 감옥은 이곳이 아니라 아고라 안에 있었다. 그리고 플라톤의 대화록 파이돈을 읽어보면 감옥이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방이 몇 개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아 그 수를 알 수 없지만 소크라테스가 갇힌 감방은 침대가 놓여 있는데도 많은 방문객들이 그 방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신 후에 방안을 이리 저리 걸어도 다닐 만큼 넓었다. 그리고 그 감방 외에 간수가 거거하는 방이 따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목욕실이 따로 있었다.

역사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이라도 플라톤의 파이돈이란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위에 말한 토굴이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필자와 함께 아테네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들 중에 송실대출신으로서 후에 중앙대학교의 교수가 된 김내균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은사가 되시는 한국에서 철학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안병욱 교수님이 아테네를 방문하셨을 때, 그 분을 이곳으로 모시고 가서 그 곳이 소크라테스의 감옥이라고 했더니 그 분이 펍 감회 깊은 표정을 지었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그리고 빌립보 유적지에 가보면 유적지 북쪽으로 대로가 지나고 있는데, 그 길 건너편에 조그만 방갈이 보이는 토굴이 있고 이것의 입구도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역시 격자 쇠창살로 막아놓았다. 이 장소는 소크라테스의 감옥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아테네에 있는 굴보다는 약간 크지만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역시 규모가 너무나 작다. 뉴저지 안다독교회에서 시무하셨던 황은영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 분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안내로부터 그 곳이 사도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셨다.

그런데 사도행전 16:23-29에 보면 사도바울이 갇힌 감옥 역시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분리되어 깊은 옥에 갇힌 것이거나 간수가 불을 들고 뛰어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읽은 분이라면 그 곳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성지를 순례할 때는 비록 안내서를 미리 읽지는 못할지라도 그에 관련된 성경을 한 번쯤 미리 읽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목사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9) 플라톤철학이 헤라클레이토스 철학과 소크라테스 철학의 결합인가?

그런데 이처럼 일반인들이나 비전문가들이 고대희랍 특히 유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학계의 이름있는 분들이 보다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유사한 실수를 범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Paul and Rabbinic Judaism>과 <The Setting of the Sermon on the Mount>의 저자로, 그리고 신약학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 데이비스(Davies)교수는 한 때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그의 책 신약학의 초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세기의 모든 철학적 경향들 뒤에 플라톤의 모습이 멀리 우뚝 서 있다. 그가 임태한 플라톤철학은 아마도 그 이전의 두 힘 즉 소크라테스주의와 헤라클레이토스주의의 결합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은 만물이 끊임없이 유전하고 있다고 한 헤라클레이토스에 동의한다. 그 결과로 이것들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지식의 대상은 불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정의(definition)는 보편자들에게 관한 것이라고 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다...”

데이비스는 여기서 서로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의 사상을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희랍철학에 대한 그의 오해 내지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플라톤이 헤라클레이토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스의 사상과 결합한 것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아니라, 그와는 대조적으로 존재는 하나며 불변하다고 한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이며,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도 가치도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소피스트들의 사상과 대조되는 것이다.

소피스트들의 사상은 감각적 세계에,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정의 그리고 보편자들에 대한 탐구는 정신적 세계 즉 아이디어의 세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플라톤의 영혼과 우주에 대한 견해는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희랍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에게는 상식에 속한다. 데이비스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플라톤 연구로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 후에 미국에서 뉴욕에 있는 유니온신학교와 저명한 대학들 중의 하나인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에서 가르쳤는데, 그런 그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희랍철학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6권으로 된 희랍철학사를 쓴 거트리도 유사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속)

[새벽강단]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본문: 사도행전 9장 1~9절

사도행전 1~8장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성령 행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퍼지지 않아 핍박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 사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울'이 복음 선포에 있어서 획기적인 장면입니다. 9:12-26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회심한 장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장면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바울이 놀라게 쓰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식 표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쓰이게 된 것은 로마의 이름이 더 친숙하게 다가와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이 초대교인 박해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보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꼭 잡아오리라'고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가는 와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싸 비쳤다'고 했습니다. 또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들렸는지 사울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누구십니까?'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지금 핍박 받는 성도들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



박 덕 근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와 함께 하는 다른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처음 만나는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 안에서 하나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사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과 만남의 장면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옵니다. 복음을 간증을 통해 전할 때 효과적인 전도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게 변화된, 일생에 있어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경험은 전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데에 이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확증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확증시켜 주십니다. 사울로 인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특별한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 대화와 수업은 진행되었지만 아무도 내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행복한 학교에 다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매년 6월 학교 졸업식이면 나는 어김없이 졸업생들의 간증을 듣는다. 그들이 얼마나 이 학교에 있는 동안 행복했었는지를 말이다. 누군가 저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패의 굴레를 끊고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친다.

때로는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다그치기도 했지만,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정말 나를 사랑하기에 한 번 뿐인 자신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고백들을 듣게 된다. 정말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 멀리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다시 그 중심으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이었고 끈질기게 싸워야 하는 이유였다. (계속)

글= 이재영 LA사랑의교회  
공립 대안고등학교 학교운영책임자

▷주소: 520 S. La Fayette Park Place #453, LA, CA 90057  
▷전화: (213) 385-5358  
▷한국어 상담 및 문의: (714) 720-5113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대(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재배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재배 8:00 분당

**남가주 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성숙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길은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삼신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분당)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10:00(미리센터)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미리센터)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리센터: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미리센터 건너편)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앨버틴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전 1:30

**앨버틴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각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아있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시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신구받은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감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 7면으로부터 받음

진심은 통한다

그러나 진심은 통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학생들이 우리의 진심을 읽기 시작했다. 정말 자신들이 잘되도록 사랑으로 훈계하는 교사들과 스테프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면 이렇게까지 힘을 들여 이들의 삶을 간섭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목표인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면 이들의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야만 했다.

우리의 역할은 교사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때로는 부모와 같아야만 했다. 한 번은 교칙을 어겨 퇴학을 당한 학생이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교사들은 이 학생을 다시는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반대했었다. 일단 말이나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그 학생을 만났다. 다시 우리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교칙도 지키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반항했던 학생이었는데 말이다. 교사들과 관계도 썩 좋은 편도 아니었고 말이다.

내심 궁금했다. 왜 오려고 하는지 물었다. "제가 이 학교를 떠나 2-3곳의 학교를 지난 1년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잘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식적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확장 이전 기념 세일!

100불 이상 구입시마다  
미네랄 회색 바다 소금  
1파운드 (16온스-40불상당)

무료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100불 이상 구입시 마다  
**Sea of Cortez 무공해 천연 미네랄 회색 바다소금**  
1파운드(16온스 - 시판가 40불)를 증정하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No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No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리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할.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니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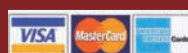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융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 Life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비결

## 이젠 다이어트도 ‘초스피드’ 시대 1주일에 7-25파운드 지방 제거

오랜 시간이나 단기간의 체중 조절,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빨리 체중을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선한의원에서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이어트 치료를 실시함으로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S자 몸매를 위해서 이 약, 저 약 여러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 본 사람들은 결국엔 영선한의원의 초스피드 다이어트 약을 선호하게 된다.

초스피드 다이어트의 장점은 확실한 체중 조절 후 가끔 2-3파운드 체중이 증가되면 그때 그때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도 본인들이 조절해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50파운드 사람이 10파운드 체중을 줄이고자 할 때 2-3달 동안 천천히 다이어트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2-3일 정도 많은 양의 세끼 식사를 하게 되면 줄어든 10파운드 체중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영선한의원에서 초스피드로 1~2달 안에 원하는 체중을 많이 절감, 치료해 준다. 그러나 무절제한 식사를 하게 되면 요요현상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영선한의원의 초스피드 다이어트 치료 후 2-3파운드 정도는 본인이 직접 조절할 수 있어야 요요 현상이 없다.

요요현상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다이어트 광고들을 종종 본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무절제한 식사로 몸관리를

하지 못하면 체중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체중이 천천히 늘어나는 것도 요요현상이므로 계속 건강관리, 몸관리를 해야 한다.

건강한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거의 흡수하게 되어 있다. 적당한 양이 아닌,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음식 섭취를 반복하게 되면 체중은 급속도로 증가한다. 매일 1000킬로리 정도의 식사로 몸 관리를 잘 하다가 가끔 3000~4000 칼로리의 식사 후 2시간 땀 흘리며 운동한다고 해서 2-3파운드라도 체중은 줄어 들지 않는다. 그만큼 많은 양의 식사는 운동으로만 조절이 안되므로 식사량 조절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비만, 내 몸 전체를 위협한다

체중이 많이 늘어난다면 우선 고혈압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머리 뒷목이 뻣기거나 지독한 어지럼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열감도 있게 된다. 또한 얼굴도 붉어지고 머리 속 두드러기나 탈모도 생기며,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눈에 통증과 모래가 들어간 것 같고, 팔기코라든지 코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혀도 감각이 없어지면서 입 근처에 경련이 일어나고 얼굴 반쪽에 감각이 없기도 하며, 풍치도 자주 생기고, 목

에

혹

기면 팔이 저리고 통증이 오며, 모든

관절마다 관절염이 생긴다. 아랫배가

당기고 통증이 있을 때는 남자는 전

립선에 문제가 있고, 여자는 요실금

과 자궁에 물혹과 근종이 생겨 시간

이 지나면서 근종이 커지고 하혈도

하게 되며 혹이 점점 커져서 자궁 절

제 수술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배꼽 아래 부분에 문제가

많으면 아랫배에 통증도 있고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다리 당김, 쥐어짐 등

경락 순환이 안되며

무좀균도 서식하기

좋은 온도로 형성

된다. 이 때 무좀

약만 쓴다고 무좀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몸 전체

가 나쁜 균이 서

식하기 좋은 장소

가 되므로 몸 전체

를 치료해야 나쁜균

과 여러 가지 나쁜 증

상들이 없어진다. 이렇듯

비만과 성인병 치료는 식생

활 습관과 직업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치료해야 한다.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으며, 멍

치가 답답하고 가스도 차고 역류성 식

도염이나 배가 더부룩하면서 속도

쓰리고 위에 염증도 있게 된다.

비만으로 인하여 경추에 문제가 생

기면 팔이 저리고 통증이 오며, 모든

관절마다 관절염이 생긴다. 아랫배가

당기고 통증이 있을 때는 남자는 전

립선에 문제가 있고, 여자는 요실금

과 자궁에 물혹과 근종이 생겨 시간

이 지나면서 근종이 커지고 하혈도

하게 되며 혹이 점점 커져서 자궁 절

제 수술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배꼽 아래 부분에 문제가

많으면 아랫배에 통증도 있고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다리 당김, 쥐어짐 등

경락 순환이 안되며

무좀균도 서식하기

좋은 온도로 형성

된다. 이 때 무좀

약만 쓴다고 무좀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몸 전체

가 나쁜 균이 서

식하기 좋은 장소

가 되므로 몸 전체

를 치료해야 나쁜균

과 여러 가지 나쁜 증

상들이 없어진다. 이렇듯

비만과 성인병 치료는 식생

활 습관과 직업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치료해야 한다.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으며, 멍

치가 답답하고 가스도 차고 역류성 식

도염이나 배가 더부룩하면서 속도

쓰리고 위에 염증도 있게 된다.

비만으로 인하여 경추에 문제가 생

기면 팔이 저리고 통증이 오며, 모든

관절마다 관절염이 생긴다. 아랫배가

당기고 통증이 있을 때는 남자는 전

립선에 문제가 있고, 여자는 요실금

과 자궁에 물혹과 근종이 생겨 시간

이 지나면서 근종이 커지고 하혈도

하게 되며 혹이 점점 커져서 자궁 절

제 수술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배꼽 아래 부분에 문제가

많으면 아랫배에 통증도 있고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다리 당김, 쥐어짐 등

경락 순환이 안되며

무좀균도 서식하기

좋은 온도로 형성

된다. 이 때 무좀

약만 쓴다고 무좀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몸 전체

가 나쁜 균이 서

식하기 좋은 장소

가 되므로 몸 전체

를 치료해야 나쁜균

과 여러 가지 나쁜 증

상들이 없어진다. 이렇듯

비만과 성인병 치료는 식생

활 습관과 직업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치료해야 한다.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으며, 멍

치가 답답하고 가스도 차고 역류성 식

도염이나 배가 더부룩하면서 속도

쓰리고 위에 염증도 있게 된다.

비만으로 인하여 경추에 문제가 생

기면 팔이 저리고 통증이 오며, 모든

관절마다 관절염이 생긴다. 아랫배가

당기고 통증이 있을 때는 남자는 전

립선에 문제가 있고, 여자는 요실금

과 자궁에 물혹과 근종이 생겨 시간

이 지나면서 근종이 커지고 하혈도

하게 되며 혹이 점점 커져서 자궁 절

제 수술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배꼽 아래 부분에 문제가

많으면 아랫배에 통증도 있고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다리 당김, 쥐어짐 등

경락 순환이 안되며

무좀균도 서식하기

좋은 온도로 형성

된다. 이 때 무좀

약만 쓴다고 무좀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몸 전체

가 나쁜 균이 서

식하기 좋은 장소

가 되므로 몸 전체

를 치료해야 나쁜균

과 여러 가지 나쁜 증

상들이 없어진다. 이렇듯

비만과 성인병 치료는 식생

활 습관과 직업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치료해야 한다.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으며, 멍

치가 답답하고 가스도 차고 역류성 식

도염이나 배가 더부룩하면서 속도

쓰리고 위에 염증도 있게 된다.

비만으로 인하여 경추에 문제가 생

기면 팔이 저리고 통증이 오며, 모든

관절마다 관절염이 생긴다. 아랫배가

당기고 통증이 있을 때는 남자는 전

립선에 문제가 있고, 여자는 요실금

과 자궁에 물혹과 근종이 생겨 시간

이 지나면서 근종이 커지고 하혈도

하게 되며 혹이 점점 커져서 자궁 절

제 수술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배꼽 아래 부분에 문제가

많으면 아랫배에 통증도 있고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다리 당김, 쥐어짐 등

경락 순환이 안되며

무좀균도 서식하기

좋은 온도로 형성

된다. 이 때 무좀

약만 쓴다고 무좀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몸 전체

가 나쁜 균이 서

식하기 좋은 장소

가 되므로 몸 전체

를 치료해야 나쁜균

과 여러 가지 나쁜 증

상들이 없어진다. 이렇듯

비만과 성인병 치료는 식생

활 습관과 직업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치료해야 한다.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으며, 멍

치가 답답하고 가스도 차고 역류성 식

도염이나 배가 더부룩하면서 속도

쓰리고 위에 염증도 있게 된다.

비만으로 인하여 경추에 문제가 생

기면 팔이 저리고 통증이 오며, 모든

관절마다 관절염이 생긴다. 아랫배가

당기고 통증이 있을 때는 남자는 전

립선에 문제가 있고, 여자는 요실금

과 자궁에 물혹과 근종이 생겨 시간

이 지나면서 근종이 커지고 하혈도

하게 되며 혹이 점점 커져서 자궁 절

제 수술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배꼽 아래 부분에 문제가

많으면 아랫배에 통증도 있고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다리 당김, 쥐어짐 등

경락 순환이 안되며

무좀균도 서식하기

좋은 온도로 형성

된다. 이 때 무좀

약만 쓴다고 무좀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몸 전체

가 나쁜 균이 서

식하기 좋은 장소

가 되므로 몸 전체

를 치료해야 나쁜균

과 여러 가지 나쁜 증

상들이 없어진다. 이렇듯

비만과 성인병 치료는 식생

활 습관과 직업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치료해야 한다.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으며, 멍

치가 답답하고 가스도 차고 역류성 식

도염이나 배가 더부룩하면서 속도

쓰리고 위에 염증도 있게 된다.

비만으로 인하여 경추에 문제가 생

기면 팔이 저리고 통증이 오며, 모든

관절마다 관절염이 생긴다. 아랫배가

당기고 통증이 있을 때는 남자는 전

립선에 문제가 있고, 여자는 요실금

과 자궁에 물혹과 근종이 생겨 시간

이 지나면서 근종이 커지고 하혈도

하게 되며 혹이 점점 커져서 자궁 절

제 수술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배꼽 아래 부분에 문제가

많으면 아랫배에 통증도 있고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다리 당김, 쥐어짐 등

경락 순환이 안되며

무좀균도 서식하기

좋은 온도로 형성

된다. 이 때 무좀

약만 쓴다고 무좀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몸 전체

가 나쁜 균이 서

식하기 좋은 장소

가 되므로 몸 전체

를 치료해야 나쁜균

과 여러 가지 나쁜 증

상들이 없어진다. 이렇듯

비만과 성인병 치료는 식생

활 습관과 직업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치료해야 한다.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으며, 멍

치가 답답하고 가스도 차고 역류성 식

도염이나 배가 더부룩하면서 속도

쓰리고 위에 염증도 있게 된다.

비만으로 인하여 경추에 문제가 생

기면 팔이 저리고 통증이 오며, 모든

관절마다 관절염이 생긴다. 아랫배가

당기고 통증이 있을 때는 남자는 전

립선에 문제가 있고, 여자는 요실금

과 자궁에 물혹과 근종이 생겨 시간

이 지나면서 근종이 커지고 하혈도

하게 되며 혹이 점점 커져서 자궁 절

제 수술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배꼽 아래 부분에 문제가

많으면 아랫배에 통증도 있고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다리 당김, 쥐어짐 등

경락 순환이 안되며

무좀균도 서식하기

좋은 온도로 형성

된다. 이 때 무좀

약만 쓴다고 무좀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몸 전체

가 나쁜 균이 서

식하기 좋은 장소

# 끈질긴 싸움



이재영 운영책임자  
LA사랑의교회  
공립 대안고등학교

미국내 공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동성애 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반기독교 교육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보장되지 않는 기대보다 이제 교회가 적극 나서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차세대 新개념 대안학교'를 설립해 운영 중인 교육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그렇게 2-3년이 지나면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학생들에게서 듣는 같은 말이 있다. 바로 더는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자기보다 더 어린 학생들이 그나마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에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치고 올라오니 특별한 기술도 없고, 기술이 요구되는 직장도 아닌 곳에서 버티고 있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혹 좋은 직장에서 시작을 한다 해도 승진 시험이나 자격시험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곧 깨닫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세상에서 썩맛을 보고 나서야 학교로 돌아오는 만스물 두어살의 만학도들이 있다.

### 가정을 벗어난 학생들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일은 바로 부모의 부재다. 학생들이 성공하려면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아이들 곁에는 부모가 없다. 먼저 한국 학생들은 유학생의 경우 자취나 하숙을 하기에 부모가 곁에 없다. 한국에서 전화 몇 통, 수년에 한 두 번 정도의 방문으로 자녀들이 매일 치러야 할 전쟁을 방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가 생기면 유학생들의 가디언과 상담을 하긴 하지만 내 자식만큼 애뜻한 마음이 없다. 아니 간절함이 없다면 해야 할까? 그 이면은 학생들도 부모의 부재를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 필요할 때 부모는 곁에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하루의 쉽 허락되지 않는 이민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단한 삶을 사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위해 나누어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다.

또 한 부류의 아이들은 가출한 학생들이다. 그들의 삶을 들여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기적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친구 집들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부모의 보호 없이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채 거리를 배회하며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사는 학생들이 있다. 가출한 아이들을 색안경으로 보기 전에 그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부모의 부재 그리고 가정의 부재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가정의 파탄으로,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 공동체는 더 이상 이들에게는 전쟁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곳이 되어 버렸다. 가정폭력에 시달려,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부모로 인해 어쩌면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선지도 모른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학생들은 학교 문을 두드린다.

### 멈추어 버린 학습 능력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셨다. 성장기에 맞춰 또 그 나이에 꼭 습득해야 할 지식과 발전해야 할 학습 영역이 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학생들은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그 학생의 학습능력은 거기서 멈추어 버린 것이다. 우리 학교에 등록하면 모든 학생이 Assessment Test 학습능력 평가시험을 거치게 된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학생이 그 나이에 걸맞은 학습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학업을 중단한 그 학년 이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시험결과를 받아보면 이 학생이 언제 학업에 흥미를 잃게 되었는지가 대충은 짐작이 가게 된다.

우리 학교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보통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까지 약 3-5년 정도가 소요된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3년은 거의 10년과 맞먹는 시간일 것이다. 이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습관화되는데 이 시간을 놓친 학생들에게서는 예외없이 동년배 학생과는 현저하게 떨어진 학습 장치가 나타난다. 특별히 주의력 결핍이 심하게 나타나고 간단한 공식을 외우거나 적용하는 것에 애를 먹기도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한 단락의 글도 문법에 따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또한 기본적인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역사의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무조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자신이 인정하기 싫어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 몸의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 학생들

우리 학교 수업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5분까지다. 물론 단 1분의 지각도 허용치 않는다. 그리고 1분도 일찍 먼저 집에 갈 수 없다. 매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두 주간 Orientation Week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신입생들에게 주어진 테스트는 정식 등교와 학교에서 정해진 교칙을 따르는 일이다. 이때 단 한 번이라도 지각하거나 교칙을 어기면 입학이 취소된다. 그뿐

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때에도 누구의 통제와 감시도 없지만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움직인다. 학교에 입학해도 이 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단 두 번의 경고 후 한 주간의 정학을 거치고 그래도 교칙을 따르지 않으면 퇴학시킨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누가 학교에 남느냐고 반문하겠지만 학교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학생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몸의 습관 변화다.

초창기 학교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은 제시간에 자리에 와 있는 법이 없었다. 수업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는데 10시가 넘어야 겨우 반 정도가 출석한다. 아예 오후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학생도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만난 학생들이 정작 교실에는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시간 개념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였다. 밤이 새도록 놀다가 다음 날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몸에 밴 학생들에게 아침 8시30분은 정말 새벽과 같았을 것이다. 집에서 자고 있어도 누구 하나 깨우거나 학교에 가도록 보내는 이 없이 그렇게 수년을 살아온 학생들에게, 누구의 간섭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학생들에게 정시 등교는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한 학생들을 독려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는 정말 끈질긴 싸움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서 벗어나 수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살아온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하루를 계획성 있게 살도록 하는 일이었다. 방과 이후의 삶까지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교에서 보내는 7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는 이들에게 계획되고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아무리 교과과정이 훌륭하고 시설과 환경이 좋아도 단 하나, 몸의 습관이 길들여 있지 않으면 결코 이들은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세운 목표가 위대하고 비전이 훌륭해도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면 그저 화려한 외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이 "Mental Toughness"라고 불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 한 두 명이 아무리 잘해도 학급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없기에 전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느슨하게 풀려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누가 깨우지 않아도 태워다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학교에 정시에 등교해서 자신의 하루 스케줄에 따라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일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시간씩 그 틀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훈련이다. 반복적으로 아주 귀찮을 정도로 몸을 움직여야 하니 말이다.

2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오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교사와 행정가들이 집요할 만큼 학생들을 파악해 학교에 나오도록 한다. 이즈음 되면 벌써 이탈자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작심삼일'이 보통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이라면 이 학생들은 '작심하루'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일단 등교하는 것이 몸에 습관이 되어야 그 다음 티칭(teaching)도 가능하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대안학교에 입학하려면 성인 학생이건 상관없이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말은 학생의 문제에 부모나 가디언이 반드시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를 무단결석하거나 지각하면 그 날은 반드시 학부모나 가디언이 학교를 오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들에게는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관심을 쏟는 만큼 아이들은 반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모의 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온 학생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지각하거나 빠져서 골치 아픈 뒷감당을 하느니 차라리 학교를 정시에 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했다.

초창기 학생들의 반발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별히 만 18세 이상의 성인 학생들의 빈정거림과 누군가 자신의 삶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매우 컸다. 또한, 부모들이 자신들의 교칙 위반으로 인해 교사들과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이들을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학생들에게 모범감을 주거나 창피를 주기 위한 일이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모에게 고자질하기 위해 상담을 강제로 받게 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만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아이들의 변화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 11면으로 이어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FEDERAL 및 STATE TAX CREDIT 세미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공해오던 TAX CREDIT 중 하나가 올해로 종료를 합니다. 당장 REFUND 는 기대하지 못하시더라도 지금 받아 놓으시면 향후 10 년간 STATE TAX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신청 가능한 STATE TAX CREDIT 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더불어 EMPLOYMENT 와 관련된 FEDERAL TAX CREDIT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의 직접적인 TAX 절감효과를 보실 수 있는 TAX CREDIT 세미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9월 30일 P.M.6:30
- 장소 : 엠마오교회 (691 S. HARVARD BLVD 2 층 LA, CA 90005)
- 주최 : BH&J ACCOUNTING FIRM(방재웅 CPA)
- 예약 : 213.386.1665

\*추후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과 역사를 보는 눈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하나가 아니라 넷입니다. 사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여러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왕의 관점에서, 마가는 종의 모습으로, 누가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복음서 기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잘 이해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적은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역사도 각기 다른 눈에 의해 적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대인의 역사를 두 눈, 즉 두 시각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보는 방식을 우리는 사관(史觀), 역사적 관점(historical perspective)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있는 그대로의 풍성함으로 그대로 보시지만, 우리 사람은 모든 역사의 의미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수많은 역사적인 관점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보기 어렵고,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단순화한 시각을 가지고 조금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주신 계시를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주신 관점으로 역사를 읽었고 또한 기록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첫째 사관이 '신명기적 관점' 즉 '신명기 사관'입니다. 모세는 율법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거듭하여 반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르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말씀의 순종에 대한 다짐을 거듭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난 관점은 후대의 모든 역사책에 규범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이러한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술된 역사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말씀을 여김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관점입니다. 이 사관은 '범죄-심판-회개-구원-범죄'의 순환이 계속되는 선민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관은 역대기 사관입니다. 역대기 상하와 느헤미야, 에스라는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이전의 역사를 기술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역대기의 관점인데, 이는 다윗 왕조가 멸망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총독과 제사장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일체감과 믿음의 전달을 위해 역사를 재해석한 것입니

다. 역대기 상하는 따라서 신명기 사관이 가진 왕조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멸망하고 왕조는 해체되었으며, 민족과 신앙만이 존재하고, 그 민족은 여전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적혀진 역대기는 당시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남조 유다 중심, 성전 중심으로 기술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전자가 왕조사를 중심으로 선지자적인 관점의 역사라면, 후자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적인 관점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금 영적으로 돌이켜, 왕조가 있거나 없거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세워진 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부분적으로 행하면서

도 실책을 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왕조가 사라지고 난 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이제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 총독과 제사장의 통치 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날 영원한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놀랍게도 구약시대에 오랜 동안 예언된 지도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셨으나 탐욕스런 제사장과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던 당시의 열심당원들도 그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왕은 세계 속에서 인정을 받았으며, 수많은 이방인이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며 구약 교회를 잇는 신약교회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왕조가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까지 교회는 그의 직접 통치를 준비하고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으로 세상의 역사를 조망하며 교회사를 조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 읽기, 역사 바르게 보기와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보는 눈을 줍니다.

# 사람이 자기 말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서점에서 책을 뒤적이는데 익숙한 제목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던 어떤 여자 분이 쓰신 책입니다. 책 표지에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간단명료하면서도 확신에 가득찬 그녀의 조언들은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마지막 생명의 끝자락을 움켜쥐고 힘겹게 버티고 있던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원한 처방제였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들도 그녀의 책과 강의를 접하면서 별뿔 일어섰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그녀의 당찬 모습은 경제 대란으로 우왕좌왕하며 절망하고 있던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녀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한 모텔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자신의 비겁한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비통한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여러가지 난치병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짓눌려 왔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통증과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녀는 결국 국지적으로 지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동반자살로 함께 생을 마친 것입니다. 아무리 명감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말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놀언민행(謔言敏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은 다소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직스러울 때가 많

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대부분 공허에 불과합니다(마태복음 7:24-27).

며칠 전에 대학에 다닐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와 한 통의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민목회를 접고 떼어내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택한 용기있는(?) 친구입니다.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공장에서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전에 그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면 "주님을 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십일조 앞에서는 별뿔 떠는 비겁한 모습을 보고 칼날 같은 질타의 말을 던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서릿발 같은 위상을 가진 친구가 잔뜩 풀이 죽어서 푸념 같은 고백을

던졌습니다. "야!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그들의 입장에 서게 되니까, 나도 내 말대로 살지 못하더라구!" 더이상 찢어 발릴 것이 없는 빈티나는 박봉에서 심일조를 댄다는 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주 전부터 이 친구가 다시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부임설교를 앞두고 "이제는 강단에서 말을 하는 것이 두렵다"고 자신 없어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었습니다. "친구야! 너는 정말 말을 잘하게 될거야. 반드시 성공적인 목회를 할거야. 힘내라!"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말은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말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생생한 기사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는 정직한 신문 **기독일보**



#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 상경추 교정
- 경추 교정
- 척추 교정
- 체형 교정
- 관절염
- 자세 교정
- 허리 디스크 교정
- 골반 교정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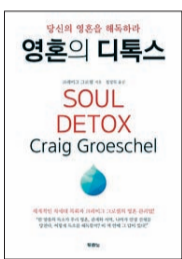


### 신간추천

#### 영혼의 디톡스

크레이그 그로셀 | 두란노 | 260쪽

저자 크레이그 그로셀은 잡초를 너무 오래 놔두면 곡식을 모조리 말라 죽게 하듯, 영혼 속 독소를 방치하면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소멸시킨다고 주장한다. 요즘 대세인 '디톡스'를 영혼에 적용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거룩을 막는 독소들을 살피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 전략을 고민한다.



####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셰인 클레어본 | 아바서원 | 400쪽

하나님의 뜻에 부더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 온 저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복음이 아닌 위협하고 불편한 복음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말씀을 선별해 실천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대로 말씀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니북으로도 나왔다.



#### 난파

제프 고인스 | DMI | 263쪽

고통 없는 일상, 고민 없는 삶으로는 결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 저자는 '난파'를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위한 분기점이라고 말한다. 안전지대에 편안히 앉아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난파되고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비전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

류웨이 | 엘도라도 | 344쪽

세계 유일의 발가락 피아니스트 류웨이가 전하는 인생역전의 감동실화. 열 살 때 고압전류에 감전돼 두 팔을 잃은 뒤 피아노 연주에 성공하고, 중국 최대 오디션 프로그램 '차이나 갓 탤런트' 최종 우승을 거머쥐기까지, 스물여섯 청년의 치열했던 삶의 순간들이 생생하다.



### REVIEW

##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 존 파이퍼가 말하는 '기독교 기쁨주의' 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3)”  
“사랑은 ...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고전 13:5)”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사랑장(고전 13장)'.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다. 진정한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유익이 있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존 파이퍼 목사는 신간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좋은씨앗))에서 이에 대해 답하고 있다. 바울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

은 사랑하는 일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개인적 위안이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기쁨을 얻길 기대하며 사랑을 실천하더라도, 사랑의 행위 자체가 갖는 도덕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  
이는 파이퍼 목사가 '기독교 기쁨주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끄집어 낸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이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참된 사랑과 거리가 있으며 결국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주장에 반기를 든다. 웨스트민스터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  
존 파이퍼 | 좋은씨앗 | 152쪽

신앙고백이 말하듯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and)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이 '하고'를 '함으로써(by)'로 바꿔 보자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고귀한 소명이 된다. 이는 세상의 '작은 기쁨'에 만족하다 '영원하고도 무한한 기쁨'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는 고통과 슬픔을 배제하거나 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 신입생 (편입생) 학생모집

**정식 BPPE인가**

**1-20 유학생**

★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SEVIS I - 20 자체 발행**

본 대학은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인준된 학교이며 졸업후 고시합격자에 한하여 **목사 안수**를 받을수 있는 특전을 드립니다.

**많은 장학금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본교는 Quarter로 수업함으로 **수시입학이 가능합니다!!**

**상담안내 : 한국어 213- 598-3146 / English 213-388-5992**

**1543 W. Olympic Blvd, Suite 317, Los Angeles, CA 90015 / U.S.A**



신간 <곰 두 마리>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

# 청교도 존 라일의 어린이 설교와 거짓 교회에 대한 경고

19세기 청교도 개혁주의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라일(John C. Ryle)의 저서들이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다. 최근에도 그의 어린이 설교집 <곰 두 마리>(The Two Bears·그책의사람들)와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Warnings to the Churches·지평서원)가 잇따라 나왔다.

### ◆ “어린이에게도 재미 중심 프로그램보다, 복음 자체가 중요”

<곰 두 마리>는 존 라일 목사가 어린이의 회심과 경건에 대해 전한 다섯 편의 설교 모음집이다. 존 라일 목사는 시종 인자한 할아버지가 어린이들에게 당부하듯 따뜻하고 친절한 말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른들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을 만큼 내용이 진지하고 무게감 있으며, 진리에 관한 한 주일예배 성인 설교보다도 단호하다.

책의 제목과도 같은 설교 ‘곰 두 마리’는 어감과 달리,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마흔 두 명의 ‘어린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존 라일은 “이 어린이들은 엘리사를 조롱하고 나쁘게 대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라며 “무엇보다 이 어린이들은 엘리사가 그러했듯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말하면 안 되었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

요, 우리에게 하늘로 가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라고 말했어야 해요”라고 지적한다. 결국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곰 두 마리’가 나타나 이 어린이들을 공격하게 됐다.

라일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이 하는 것에 주목한답니다’, ‘선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슬픔에 빠진답니다’ 등의 교훈을 끌어낸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마음 속에 새겨 두세요’,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선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탄에게서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매일 기억하세요’ 등 ‘눈높이 당부’도 잊지 않는다. 이외에 ‘예수님을 일찍 찾으라(잠 8:17)’, ‘진리 안에서 걸으라(요이 4)’, ‘작고도 지혜로운 것(잠 30:24-28)’,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계 21:4)’ 등을 통해 신앙을 교육한다.

출판사측은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면서도 회심하거나 회심하지 못한 어린이들의 신앙을 위해 합당하고도 지혜로운 적용을 제시한다”며 “어린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재미가 중심이 된 프로

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제한하지 않고 계시하신 복음 그 자체”라고 밝혔다.

### ◆ “교회를 세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신앙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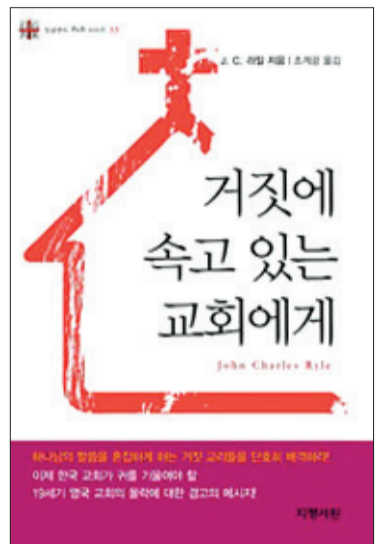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는 리버풀 최초의 주교로서 동시대를 살았던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Charles H. Spurgeon)으로부터 ‘영국 국교회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이라는 찬사를 받은 존 라일이, 당시 몰락해 가던 영국교회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교회에 침투한 인본주의와 의식주의 등의 실상을 파헤친 설교 및 강연, 논문 모음집이다.

라일은 교회의 시조가 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논한 강연 ‘참된 교회(마 16:18)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 “반석은 베드로 사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조금 전 고백한 신앙고백을 가리킨다”며 “반석은 불안정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진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곧 중보자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라고 지적한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마 16:6)’에 대해서는 형식주의자요



곰 두 마리  
존 라일 | 그책의사람들 | 176쪽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  
존 라일 | 지평서원 | 272쪽

전통송배자이며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으로, 자유 사상가이자 회의주의자요 합리주의자를 사두개인으로 각각 지칭하고, 이를 주의하라고 촉구한다.

거짓 교리는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도록 은밀하고 조용하며 음험하고 그럴 듯하게 접근하는 ‘누룩’과 같다. 이를 방어하려면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진리,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제사장적 직임,

성령의 사역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히 13:9)’에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면서 거짓 교리에 놀라지 말고 단호히 배격하면서 구원을 확신, 개신교의 원리를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함을 조언하고 있다.

이 책은 잉글랜드 청교도와 그 신앙을 계시한 존 후퍼, 윌리엄 퍼킨스, 리처드 벅스터, 존 오웬, 조지 헛필드,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존스 등 영적 위인들의 저서를 소개하는 지평서원의 잉글랜드 P&R 시리즈 33번째 작품이다.

른 이들의 아픔을 무시하는 ‘값싼 기쁨’과도 다르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듯, ‘더 낫고 영구적인 기쁨을 추구함으로써 기꺼이’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 이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선교사들의 증언이 한결같은 데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역설’은 책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파이퍼 목사는 “이 세상에서 부를 쌓기 위해 자신을 다 바치는 사람”을 현실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인 것. 하지만 이것이 진리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금’을 변화지 않는 으뜸의 가치로 두지만, 그는 “금이야 시

세가 오르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장 귀한 분으로 존재하신다”고 지적한다.

존 파이퍼 목사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C. S. 루이스의 저서들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현실의 위험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기쁨의 신학, ‘기독교 기쁨주의’를 논증하고 있다.

그가 이 ‘작은 책’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이 우리의 숨을 멎게 하기 때문이다. 그가 사용한 중심 단어 ‘기독교 기쁨주의(Christian Hedonism)’는 모순되는 두 단어를 결합한 일종의 언어유희이다. 원제는 ‘Dangerous Duty of Delight’.

이대웅 기자

## 시작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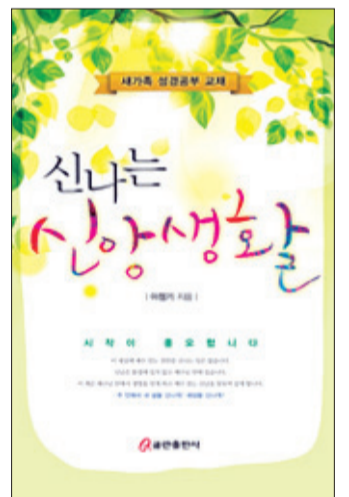
### 새가족 위한 성경공부 교재

어떻게 하면 새가족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 줄 수 있을까? 많은 교회들이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지만, 적용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던 저자가 13년간 자체적으로 사용해 오던 성경공부 교재 1단계

내용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낸 새가족 성경공부 교재다.

왜 교회에 다녀야 하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며,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은사받은 대로 사역하게 하며, 무엇보다 예수 믿는 신앙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돕는다.



신나는 신앙생활  
이정기 | 콜란 | 200쪽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여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티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티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티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90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철공 용접, 게이트 모터 수리**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경남 철공소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시온마켓 내 **치우차우만두**

- 짬뽕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선녀탕(仙女湯)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중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하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내지는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궁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령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강선영 칼럼]

# 가을 우울증



강선영 목사

또 한 번의 여름이 가고 아침저녁으로 몸이 느낄 만큼 서늘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의 열매와 은총 속에서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땅속으로 꺼지는 듯한 깊은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도 마음은 캄캄한 동굴로 내려가게 되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병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가을 우울증. 평소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들은 더 깊은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증세를 흔히 '가을을 탄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을 우울증에 걸리면 무기력해지고, 다른 우울증과는 달리 식욕이 왕성해지는 증상이 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게 되고,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

나고,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며,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가을 우울증의 원인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세로토닌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세로토닌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가을 우울증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심리적·환경적 요인으로 만성우울증이 가면 우울증 형태로 이어져온 경우, 가을이 되면 급속도로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우울증 증세가 처음 생긴 것처럼 착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단순한 세로토닌의 문제라면 병원

에 가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면에 다른 문제가 깔려 있다면, 깊은 심리상담치료를 받아서 우울증의 근본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때때로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 슬프고 불행하지?'라는 생각에 휩싸인다면, 무의식에 쌓인 상처

와 생체기를 치유받아야 반복적으로 우울을 앓지 않게 됩니다.

가을 우울증을 극복하는 간단한 방법은 여러 가지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야외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좋고, 누군가와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시키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와 익숙한 현재의 장소를 떠나 여행을 떠나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고 가을 우울증도 극복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작은 심리적 문제를 쌓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그 문제들이 점점 쌓여 큰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와 그로 인한 우울증과 심리적 문제는 치유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울한 당신은 조금도 절망하지 말고 치유된 이후의 놀라운 당신을 마음 속으로 그려 보고, 상상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1)”

글=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소장

[성지순례 칼럼]

# 시내 사본이 발견된 캐더린 수도원



김용규 목사

3세기 초 로마 제국의 막시무스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였다. 황제 숭배를 당연시하던 로마 제국에서 다른 왕을 섬긴다는 것은 반역죄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반역죄로 처형당할 때다.

당시 이집트에 거주하는 로마 귀족 가문에 용모와 학식이 출중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캐더린이다. 그녀는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여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비난하였다. 황제는 그녀가 아끼워 여러 학자들을 그녀에게 보내어 화유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그들마저도 화유당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캐더린은 결국 고문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한다. 그럼에도 그녀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 전승에 의하면 그녀의 시신은 천사들에 의하여 시나이산 제일 높은 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세월이 지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기독교는 황제가 후원하는 종교가 되었다. 교회는 점점 권력과 가까이 가게 되었으며 점차 기독교에도 부패의 기운이 돌아오게 된다. 이때 일부 수도사들은 도시를 떠나 광야에 가서 명상과 묵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운동을 했다. 이것이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다. 시나이 광야 시내산 근처에도 수도사들이 점차로 모이게 되었다. 그들은 점차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수도원을 세우게 되었다.

주후 330년 헬레나 모후가 이곳 시내산에 성지순례차 왔다. 이곳에 헬레나 모후는 불붙는 가시떨기나무 자리에 성모 마리아에게 헌납하는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수도원장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산꼭대기에 가라는 계시를 준다. 산꼭대기에 가보니 막시무스에 의하여 순교한 캐더린의 시신을 발견

한다. 이 시신을 교회로 옮기고 수도원의 이름을 캐더린 수도원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4세기경부터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순례하게 되었고 5세기에는 시나이 교구가 세워졌다. 그리고 비잔틴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방형의 사각형 요새처럼 수도원을 증축하기 시작한다. 이 수도원이 완성된 것은 주후 557년이다. 아랍이 이곳을 침입하여 점령한 후 수도사들은 30명까지 줄어들었으나, 수도원장이 마호메트에게 수도원의 보호를 요청하였고 마호메드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옛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되었다.

11세기에 접어들면서 십자군이 등장함에 따라 캐더린 수도원은 기독교 세력과 아랍 세력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곳이 되었다. 나폴레옹이 이곳을 점령할 때도 수도원은 보호되었다. 이곳은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목판 성화로 유명하다. 그 아이콘들은 약 2000개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수도원 내의 문은 비잔틴 황제인 유스티아누스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며, 1400년 이상 된 것이다. 교회 안에는 12기둥이 있으며, 이것은 12달을 의미한다고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둥 위에는 성자들의 아이콘이 있다.

교회 제단 뒤에는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여 지금도 신발을 벗어야 한다. 캐더린 수도원의 교회 이름은 변화교회라고 부른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 전 단 중앙에 있는 모자이크로 표현하고 있다. 그 그림 속에는 엘리야, 요한, 베드로, 예수님, 야고보, 모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둘레에는 12제자, 12예언자, 건축 당시 수도원장인 룬지너

스, 집사 요한 등 모두 26명의 모습이 있다. 교회 뜰에는 이드로의 샘이 있으며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시나이 반도에서만 자라난다고 하여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이 유명하게 된 것은 시내산 사본이 이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7세기 콘스탄티노플은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간의 주도권 다툼이 한창일 때다. 당시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동방정교의 수장인 그리스 정교회의 총대주교와 로마 가톨릭의 교황 간에 누가 우위에 있는가를 다투는 동안, 영국측은 그리스 정교회 편에, 프랑스측은 가톨릭 편에 섰다. 정교회의 총대주교는 영국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영국의 성경 사본 수집을 돕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영국 왕 제임스 1세에게 특별 선물을 보내려고 한다. 당시 영국 대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과 동 시대에 살았던 테클라는 순교자가 남긴 사본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기로 약속한 사본은 제임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가 1627년 찰스 1세에게 전해졌는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로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

이 사본은 그리스 총대주교가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는 길에 입수했다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본은 신약성경이 기록된

지 350년이 지난 약 400년과 450년 사이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나이 사본의 발견 과정에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발견보다도 더 극적인 이야기가 있다.

1844년 독일 출신의 콘스탄틴 티센도르프는 학생의 신분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교회와 수도원 순례에 나섰다. 당시 중동을 다녀온 사람들처럼 잘하면 사본을 발견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여행을 하였을 것이다. 그는 일정에 따라 시내산으로 알려진, 게벨 무사 북서쪽에 자리잡은 캐더린 수도원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는 온갖 종류의 사본들이 쌓여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남겨진 그의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캐더린 홀 중앙에 놓인 커다랗고 넓적한 바구니에는 오래된 양피지들이 가득했는데, 그것들은 수도원의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사용될 것이었다. 서고 담당자는 썩은 양피지 두더미를 이기 태웠노라고 했다. 나는 이 종이 더미 속에서 내가 본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희랍어로 기록된 꽤 많은 구약성경 사본들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위의 글은 티센도르프가 같은해 5월 24일에 직접 목격한 내용을 기록한 글이라고 한다. 그는 수도사들에게 사본들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리고 모두 129장을 찾아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얻고 싶었지만 수도사들은 43장만 주었다고 한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후견인인 독일의 작센주 영주에게 사본들을 가져다 주었다. 작센공은 그 사본들을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보냈고, 지금까지 그 사본들은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보관돼 있다. 1846년 티센도르프는 시내산에서 얻은 사본들을 책으로 출판하였고, 이 사본들은 4세기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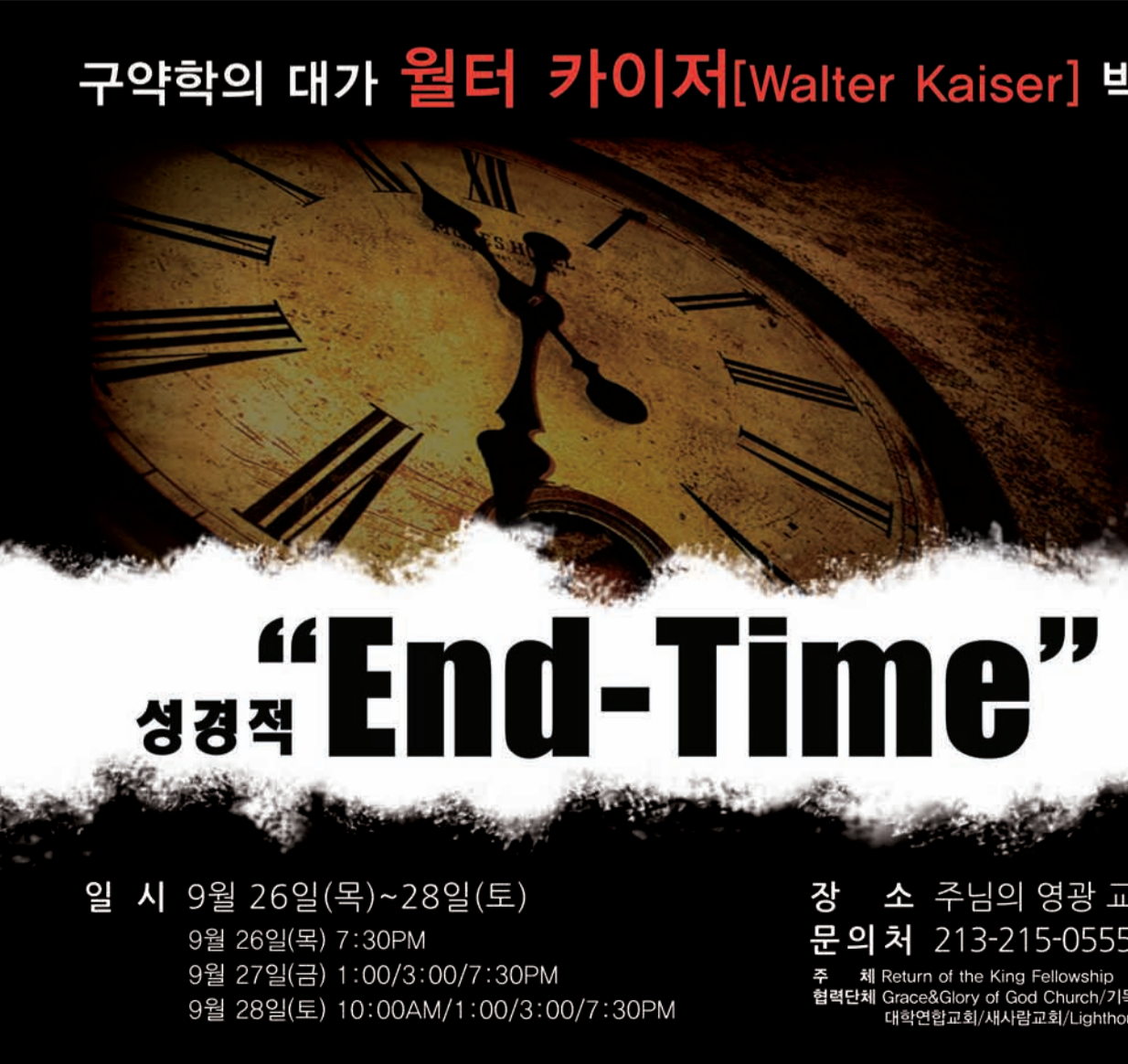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발견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1853년 티센도르프는 다시 시내산 캐더린 수도원을 찾았다. 그러나 수도원의 누구도 사본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티센도르프가 발견한 것은 창세기 몇 구절이 적힌 조각이 전부였다. 1859년 2월에 티센도르프는 수도원을 다시 방문했다. 수도원의 서고 담당자에게 자신이 출간한 헬라어 구약성경[70인역본]을 한 부 선물로 주었다. 그러자 서고 담당자도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70인역본을 자랑하면서 보여 주었다. 붉은 천에 싸인 꾸러미를 펼쳐보이자 15년 전에 보았던 사본들과 새로운 사본들이 있었다. 그러나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보여만 줄 뿐 전혀 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이었다.

티센도르프는 카이로까지 수도원장을 찾아 가서 사본을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설득했다. 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두 달에 걸쳐 사본들을 안전을 위하여, 당시 그리스정교회의 보호자인 러시아 황제에게 그것들을 맡기도록 수도사들을 설득했다. 1859년 11월 수도원은 사본들을 러시아 황제에게 보냈다. 그러나 러시아가 공산혁명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사본들을 판매하려고 할 때, 미국과의 협상은 결렬되어 영국에 판매가 된다. 당시 가격으로 10만 파운드(달러로 환산하면 50만 달러)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한 가격 720만 달러의 14분의 1일이다. 영국은 이 사본의 구입을 국민들이 기부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티센도르프에 따르면 이 사본들은 바티칸 사본처럼 주후 350년경에 필사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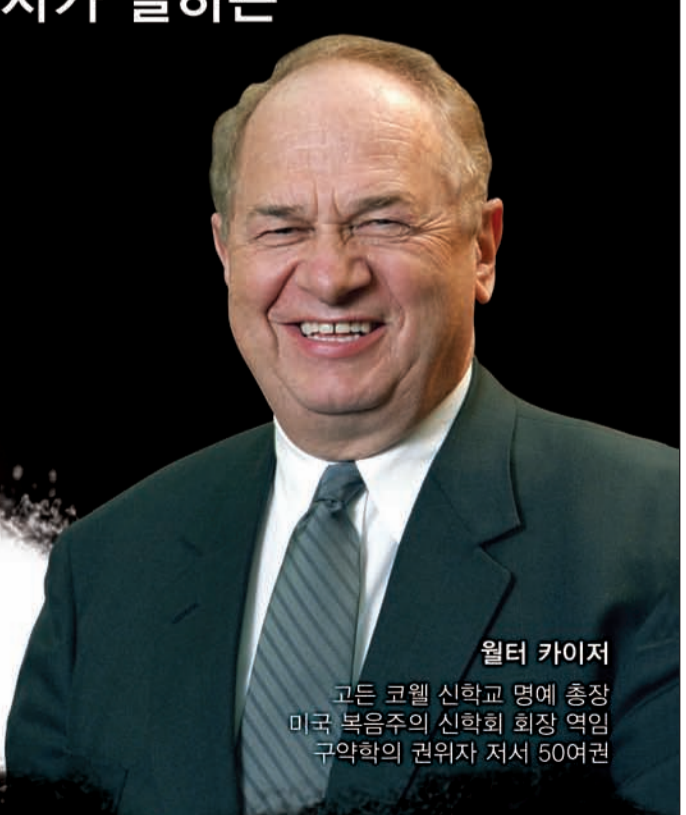
글=성지 가이드북 저자 김용규 목사

## 구약학의 대가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 박사가 말하는



# “End-Time”

성경적



**월터 카이저**  
고든 코웰 신학교 명예 총장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 역임  
구약학의 권위자 저서 50여권

**일 시** 9월 26일(목)~28일(토)

9월 26일(목) 7:30PM

9월 27일(금) 1:00/3:00/7:30PM

9월 28일(토) 10:00AM/1:00/3:00/7:30PM

**장 소** 주님의 영광 교회 Hope bldg.

**문의처** 213-215-0555(오충성 목사) / 626-376-3955(김수미 전도사)

주 체 Return of the King Fellowship  
협력단체 Grace&Glory of God Church/기독교방송/크리스천헤럴드/복음방송/크리스천신문사/CGN/은혜한교회/남가주 대학연합교회/새사람교회/Lighthouse Prayer Center/미주기독신문/주님의 교회/서울대목사회/에클레시아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다양한 차량과 색상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 9월의 스페셜



**\$115**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6,580 (STK# 549364)

PH HYUNDAI D/C	\$813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2013 ACCENT GLS**



**\$142**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100 (STK# 795853)

PH HYUNDAI D/C	\$1,263	LEASE CASH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2013 SONATA GLS**



**\$632**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0,170 (STK# 069499)

PH HYUNDAI D/C	\$53,59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000		

**2013 EQUUS SIGNATURE**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에드윈 김

626.610.6570



로버트 정

323.839.7074



스티브 장

626.513.4005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중개인으로부터 차를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없이 푸엔테힐스 현대를 통해 직접 구매하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